

ING 지금 박살 나기 직전인건 다들 잘 알고 있겠지! (2008.10.19)

ING May Seek Aid From Netherlands

[ING Groep](#) NV, one of the world's largest banking and insurance companies, plans to tap the Dutch government or other sources of funds as soon as next week,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say, in what would be the latest in the global wave of financial-industry bailouts.

ING shares plunged 27% in Amsterdam on Friday on bleak preliminary quarterly earnings and fears that the company needs more capital.

In an interview after European markets closed, Koos Timmermans, ING's chief risk officer, acknowledged the company "will probably get some more capital." He added that its business remains strong and that it has adequate access to cash.

While it is unclear how much capital ING will raise, a person familiar with the matter said one estimate of €9 billion is too high.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coming to the aid of banks hurt by collapsing confidence in the financial markets. The Netherlands, where ING is based, has bailed out rival Fortis NV and established a €20 billion fund (\$26.94 billion) that its banks can tap.

Representatives for the Dutch finance ministry and central bank declined to comment on ING.

The company was formed through a 1991 merger and traces its roots back to 1743. It offers banking, investment, life insurance and retirement services to about 85 million businesses and individuals in more than 50 countries and has about 130,000 employees.

ING's share price has fallen 73% this year, giving it a market value of €15.3 billion.

The company said its bank's Tier 1 ratio, a key indicator of financial strength, was 8.5%. But capital ratios that previously would have been sufficient are now being seen as too low. Swiss banking giant Credit Suisse Group, for example, on Thursday boosted its Tier 1 ratio to 13.7%.

ING said Friday that it expects to report a €500 million third-quarter loss because of a pretax €1.6 billion write-down of real estate and other assets as well as loan-loss provisions totaling €400 million.

Earlier this month, the Dutch government bought operations of Fortis that are based in the Netherlands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an ill-timed acquisition caused customers to flee the Belgian-Dutch banking and insurance company.

ING shares fell €2.78 euros to €7.34 Friday. Shareholders are concerned that a new investment could dilute their holdings.

긴 말 안하겠다..

내가 예전부터 제 2 금융권 포지션은 지금 상황상 최대한 빨리 정리 하라고 분명히 얘기 했지.

분명히 얘기 했다.

분명히.

지금 금융 시장 안정

어찌고 개 뺨다귀 씹어 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웃기지 좀 마.

가증 스러우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파생부터 시작해서 금융 부실 연계 상품까지 관련 액수만 40조야..

40조.. 40조 원도 아니고 40조 달러.

한국 정도는 한 방에 끝장 내 버릴 수 있다는걸 명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란 소리야.

개인 박살 난다고 한국은 정부에서 쳐다도 안 보는 나라니까..

이건 이 나라 역사가 증명해 주는 사실들이지.

아마 아니라고는 못할꺼다.

이제 봉고차 끌고 시골 가서 장사할 고구마 푸대 싣고 와야 해서 나가 봐야겠어.

에이~ 쿠.. 늙으면 빨리 뉘.져야 하는데.

-고구마 파는 늙은이가-

국내 언론을 믿지 마라..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범 지구적인 관점에서 대비 해라.

남미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국내에서는 비료값이 뛰는 세상이다.

그리고 난 애시 당초 한국 경제 펜더 맨탈 따위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웃기지 좀 마,, 잠시 잠깐 자부심 가지자고

그런 유명 같은 개 뺨다귀 같은 소리에 현혹 되고 싶은 생각 따위는 없으니까!!!

한국 경제라는 건 딱 잘라서

초간단하게 50%가 대외 변수에 의해 철저하게 좌지우지 되는

대외변수 50% 변동성이 진짜 한국 경제 펜더 맨탈이라는

그런 개소리의 실체라는걸 반드시 명심하고 살기 바란다.

알겠니???

잔인하게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제 펜더맨탈이 어찌고 저찌고 떠들어 대기에는 아직 20년 빠른 나라야..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는 집어 치고 냉정하게 현실 인식이라는 것부터 해라.

원래 나 같은 극 사실주의자는 가식이나

그런 꿀 바른 소리는 다 집어 치고 오로지 철저하고 잔인할 정도의

현실 주의자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듣기 거슬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라는게 있는거야.

이젠 파티 끝났으면 일하러 가야지 언제까지 그 댄 환상 속에 사로 잡혀서 취해 있을래!!!

-늪은이가-

윗글의 영문에 대한 번역내용 (아고라 경제방 제자리뛰기 님 글 참고)

ING는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세계 최대 은행 보험 회사 중 하나인 [ING Groep NV](#)는

당장 다음 주에 네덜란드 정부나 기타 자금지원처를 뚫을 계획이라고,

세계에 밀려오는 금융산업 구제금융의 파도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 될 그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들 한다.

ING 주가는 암울한 예비 분기실적과

이 회사가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금요일 암스테르담에서 27% 급락했다.

유럽 시장이 마강된 뒤 한 기자회견에서 ING의 위험관리 간부인

Koos Timmermans는 회사가 더 많은 자본을 구하러 나서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영업은 여전히 튼튼하며 현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ING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조성할 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문제에 정통한 한 사람은 90억 유로의 추정치는 너무 높다고 말했다.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은 금융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져 고통받는 은행들에 지원을 하고 있다.

ING의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는 그 경쟁회사인

Fortis NV에 구제금융을 지원했고 200억 유로(260억 94백만 달러) 기금을 세워

그 은행들이 받아 쓸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 재무부 및 중앙은행 대표들은 ING에 대한 코멘트는 거부했다.

ING는 1991년 합병을 통해 세워졌는데 그 뿌리는 17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는 50 여개 국가에서 약 85백만 기업 및 개인에게

은행업, 투자, 생명보험, 퇴직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13만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ING의 주가는 올해 73% 하락해 153억 유로의 시장 가치를 갖게 되었다.

ING는 재무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그 은행의 Tier 1 비율이 8.5%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전이라면 충분했을 자본비율들이 이제는 너무 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거대 은행기업인 Credit Suisse Group는

목요일 그 회사의 Tier 1 비율을 13.7%로 끌어올렸다.

ING는 총 4억 유로에 이르는 대출손실 총당금 뿐아니라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세전 16억 유로 평가 절하 때문에

3사분기에 5억 유로의 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요일 말했다.

이달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금융의 위기와 때가 좋지 않은 인수건으로 벨기에계 네덜란드 은행 보험 회사인 Fortis에서 고객이 빠져나가게 되자 네덜란드에서 운영되는 Fortis의 영업체를 사들였다.

ING 주가는 금요일 2.78 유로가 떨어져 7.34 유로가 되었다.
주주들은 새로운 투자금으로 자신들 주권의 가치가 떨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1천억 달러 지급 보증을 시장은 어떻게 보는가. (2008.10.19)

오늘 외환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게 나온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결과가 다 나온 상황에서 전혀 색자롭게 없는 상황이다.
은행간 외환 지급 보증이라는 조치는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최후의 카드라고 보는게 정답이다.

마치 낭떠러지 끝에서 마지막 황금 낙하산을 기대 하는 심리랄까?..

골든 파라슈트라는 말 들어 봤지??? ..지금 이걸 딱 그 짝이라고 보면 정답이야.

우리는 10년 전의 그 학습 효과라는걸 절대로 잊으면 안된다.
1997년 12월 20일인가 24일인가 국회에서는 분명 외채 만기 연장에 대한 지급 보장안에 대한 국회 동의라는 걸 했다. 그 다음날인가 다음다음날에 환율은 1900원대 대폭등을 하고 3일 후에 IMF 구제 금융 보치로 들어 갔다.

이번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건

일단 외형상으로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이유로 달러를 지원한다는 헛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건 이미 우리 동네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

실상은 전혀..... 네버그렇지 않거든.. 후.

현재 국내 외환 시장은 달러 부족으로 사실상 시스템 올스톱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미 정상 시장이 아니다. 이런 비정상 적인 상황에서 환율 안정이라는건

동상 이동이라는걸 알만한 놈들은 다 알고 있다..

단순히 하루나 이틀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 졌다고 오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미 현장 중소기업들 중에서 웬만한 곳은 최소 1305원에서 최대 1450원까지..

심지어는 1600원까지 보는 곳도 상당수에 키코로 2차 1080원 재계약으로

개 쌍피를 본 일선 회사들은 이전 두번 다시 그 짠 말은 안 믿는다.

이미 사업 계획상 환율 최대 적정선을 대폭 끌어 올리고

회사 사옥에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 치우는 한이 있어도 자금 확보로 이미 버티기에 들어 간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 은행의 단기 외채 만기 연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위험하다고 할 정도의 상태다.

단기 662억 달러에 장기 외채는 617억 달러 수준..

외국계 은행 지정은 단기 793억 달러에 장기 37억 달러 수준의 단기 외채가 한꺼번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외채를 상환 하지 않고 연장 (를 오버) 시켜서

해결하려고 발악을 했지만 연장 기한이 3개월-->1개월--->1주일....로 줄어 드는 상황에서

이자율 상승으로 비용 압박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상황.

거기에 현재 연장이 안 되는 물량이 전체 를 오버 물량 중 7.3% 를 넘어 가자

바로 골드만 삭스에 모건 스탠리, 무디스, S&P까지 일시에 경고 하고 나선 이유가

흔히 한국 애들이 말하는 괴담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정도로 연장 이행 불능 지경이 몰릴 대로 몰린 상황에서 하루 1~2억 달러짜리 신용장(LC)도

모조리 다 처리 불능 상황이다. 수입 원자재 수입 대금 결제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의 네고를 제한 하고외상 기한 90일 초과 신용장은 네고 불가능이다.

스왑 거래는 사실상 전면 거래 중단 상황이 되면서 선물환 거래는

현재 2008년 10월 말 현재 올 스톱인게 진짜 비정한 현실이며

수출 보험 공사의 환변동 보험도 스왑과 선물환 헤지가 안되서 인수 전면 중단 상태다.

지금 신문에서 떠드는 기사들은 모조리 다 개구라다..다 거짓말이며

한국 경제 펜던덴탈 어찌고 떠드는게 사실 우습지. 지금 상황은 사실상 시장 마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개 뽕따귀 같은 소리 믿지 말라는거야.. 외신 보도?.....

내가 보기에는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현장 상황상 그 말이 100% 다 맞는 말이야..

오버도 아니고 오히려 괴담이라고 떠드는 한국 애들이 미친게 아닌가 할 정도지..

근데 이 나라에서는 다 이런걸 숨기고 있거든?..

메이저 언론에선 이런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지..

다 쉬~~~~~쉬.. 참 나..이런 현실이 9시 뉴스에 나오는거 봤어???

문제는 은행간 지급 보증이라는게 나오면 마켓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뉴스 앵커는 대본 따라 읽으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효과라고 씨부리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게 정답이지

왜냐 하면 은행간 외화 지급 보증 조치라는걸 10년 전 학습 효과로 사람들이 알만한 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 후에 벌어진 IMF 핵폭풍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은행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다 폭로가 되서 고름이 터졌다고 보는게 대세거든.

거기에 이런걸 일반 국민들까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권 보험 외환 시장까지 불안 심리 확산으로 정부 대책은 모조리 상쇄될 공산이 더 큰 상황이다..

왜냐면 10년 전 IMF 사태에 대한 교훈이랄까?...그런게 강하거든... 그 때 이가 갈렸으니까.

거기에 정부에서는 이미 수출입 무역금융으로 50억 달러를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시중 은행에 수혈 했는데 또 200억 달러를 공급해 봐야
현재 은행 단기 외채 600억 달러 수준을 한꺼번에 해갈 시켜 주기는 무리인 데다가
사실상 현재 디폴트 상황 바로 직전까지 몰려 있는
국내 은행들이 당장 달러로 연장 안 되는 채무들을 처리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 기업 지원 명목???.....솔직히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가는 애들이 순진한거지..

지금 아무도 안 믿거든....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해 보면
열이면 열 다 개구라 치지 말라면서 아무도 안 믿는다는 판국인데 ..
하기사 일반 모르는 애들은 티비에서 떠드는 그대로 믿겠지만 실상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중소기업 지원 (X)===>>> 은행 해외 채무 상환(O)..... 이게 정답이란 말이지.

문제는 300억 달러가 거의 은행 채무 상황으로 입에 털어 넣기도
들어 가는 상황상 역효과는 광범위하게 확산 될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그럼 환율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선물환 시장은 사실상 마비.. 그럼 현물환 시장은?..

2/4 분기 :110억 달러 수준

3/4 분기:60~70억 달러 수준

4/4/ 분기:30~40억 달러 수준

이번에 공급 한다는 300억 달러는
사실상 시중 은행의 디폴트 상황 직전에
해외 채무 상환 목적에 따른 달러 긴급 수혈의 성격

따라서 외환 시장에 공급 되는 달러 공급의 수요는 극도로 제한.. 최대 10%를 넘지 않을 것...

그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과 현재 대북한 리스크 확대로
불안 심리 확산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분에 따른 환율은 단기적으로 폭등 할 것이다.

거기에 9월 무역 수지 -20억 달러 요인에 연말 부터 +65억 달러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가지 않을 경우

08년 4/4/ 분기~09년 2/4 분기

상 1270원~1350원대 밑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대중국 무역 수지 관계상 이것조차 장담 못하는 상황.

4년전 대비로 대중국 무역 수입액이 3배 이상 폭등 ..

1~9월달 대중국 무역 흑자액 규모는 130억 달러로 해마다 격차 축소 추세.

따라서 09년 사업 계획이나 외환 운용시 최저 보수적인 환율은 1305원~ 1400 대에서 플랜 설정이 불가피한 상황.

차라리 중소기업 지원 같은 말이나 하지 말든가..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마치 진짜 줄 알겠네.. 강만수 이 육시럴 늑은이가 어디서 사기를 치기는 사기를 쳐.

은행 단기 외채 달러 유동성 공급이 진짜 정답이지.. 생색 내기는 영병..

한마디로 은행 디폴트 직전으로 끝장 나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돈 퍼 부어 주는거지..

꿀꺽 떨지 말고 이전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하자.

언제까지 번지르르 한 말로 속여 쳐 먹을까.

-늑은이가-

이제는 구라 치지 말고 진실 게임 해 볼까!!!.....크르~릉...

노인네라고 속여 쳐 먹을 생각 하지 마라!!!..

꿀꺽 2400억 달러 외환 보유고에 단기 외채 1300억 달러 가지고 1천억 달러 지급 보증 어쩌고 떠들어 대면
외국 애들이 배꼽잡고 웃는다..

월 스트리트= 금융 귀족

메인 스트리트=서민+중산층(= 실물 경제)

실제 경제 굴러 가는 메인 스트리트에서는 이번 조치는 개 조까는 소리로 밖에 안 듣는다.

그건 확실히 알기 바란다.. 크르~~~~릉..

만수가 메인 스트리트로 쳐 기어 나와서 맛 다이를 까면서 실상을 봐야지 답이 나오는데
저런 봉신이 장관질을 하니 절단이 안 나는게 비정상이지...

이젠 오늘은 장사 접고 소주나 마시러 가야지.....파워-오프..전원 스위치 이젠 끈다..
개 영병 삼질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국민, 우리 은행은 지금 요주의 시장 관찰대상 그룹군이니까
각별히 알아서 조심들 하든지 말든지 하고.
웬 말인지는 다 알만큼 아니까 더 입 아프게 말 안하겠어..
-노인네가-

아니..이것들이 그렇게 누르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했건만.
아주 악착 같이 눌러 대네.. 진짜 내 이것들을..... 지금 노인네라고 괘시 하는 거냐!!!!!!!!!!!!!!
이 나라는 하여간 이런 악착 같은 근성은 알아 줘야 한다니깐.
오늘은 소맥으로 폭탄주나 만들어 먹어야 겠구나... 어이~쿠!!!!!!!!!!!!!! 너무 오래 살았어.. 암만.

김정일 사망 이후가 전혀 준비 안 된 나라. (2008.10.19)
지금 시중에서 김정일이 죽었네 마네 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로부터의 학습 효과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김일성이 사망할 94년도 당시 한국 국내 금융권 내의 달러 차입 루트가 모조리 다 봉쇄 돼서
그 때 일본 미쓰비시를 위시한 일본 금융권에서 엔화를 차입해서 조달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당시 일본 금융 기관들이 직접 엔/ 달러 스왑으로 달러 확보를 하는데
도와 줘서 그 때 간신히 버텼다는건 아무도 말을 안 해 준다.
그런데 지금 김정일이 죽었네 마네 하는 상황에..
거기애다가 금융 시장 안정화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대는 모양세라면.
입장 180도로 바뀌서 만약 내가 외국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
지금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도 이미 120억 달러 이상 철수 하고 있는 마당에?..
각자 심각하게 생각 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야..
김정일이라고 영원히 사는게 아닐 뿐더러 더 웃기는건 죽을 경우야.
지금 상황상 우리는 김정일이 죽지 말아 달라고 고사라도 지낼 판국이라 이말이지.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만큼 엄청난 추가 변수까지 모조리 다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지..
근데 지금 또 일본 애들 보고 예전 94년 김일성 죽었을 때처럼
그 때 엔/달러 스왑 해서 달러 조달해 주라면 그 애들이 해 줄꺼 같니??????
어림 반 푼어치도 없지.
이미 알만한 중소 기업들은 이미 7.8월 달에 눈치 까고 수입물량 다 들여 온지 오래다.
모르는 놈들만 지금 뒷통수 맞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거지...
핵심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최소 6개월까지 계산 하고 대비 하라는 거야..
얼마전에 미사일 서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목적도
이런걸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한 성격이니까 말야.

이젠 소맥 1 타임 끝내고.....이젠 막걸리로 사발에 부어 마시는 타임이다... 커억.....
부어라...마셔라.....나 같은 늙은이가 술이라도 실컷 마시고 죽어야지.....
한잔 들이 부어.....크~어억...
이제 노인네 술판에 다시 간다..

더 이상 펀드 환매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 (2008.10.20)
이제 현재 상황상 더 이상 펀드를 환매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걸 따지는 시기는 이제 끝난 상황..
오펙에서 최소 100만~ 최대 300만 배럴 이상 감산 조치가 기정 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미 현대 자동차의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35% 줄어든 상황상.
현재 10월달 무역 수지 적자 예상 규모가 -45억 달러 수준이라는 예상 전망치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펀드를 환매 하네 마네 하는것 자체의 선택 시기는 이젠 끝..

앞으로는 물가와 대출 이자 그리고 부채 청산 문제로 포커스가 옮겨진 상황..

미국은 통상 11월달 부터 12월에 걸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총 매출 대비 48%가 이 시즌에 소비 되는데 2008년 4/4 분기 전망상 미국 국내의 소매점 구조 조정으로 연내 10~15% 이상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

마치 지금 한국에서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이 진행 되고 있는것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미국 국내 소비 문화로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 수지 흑자 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3만 계약에 달하는 선물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외국인이 발행한 ELS 에 대한 헤지 수요라는 걸 감안 할때

현재 주가 상 투매 가능성이 대두 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주가의 연쇄 폭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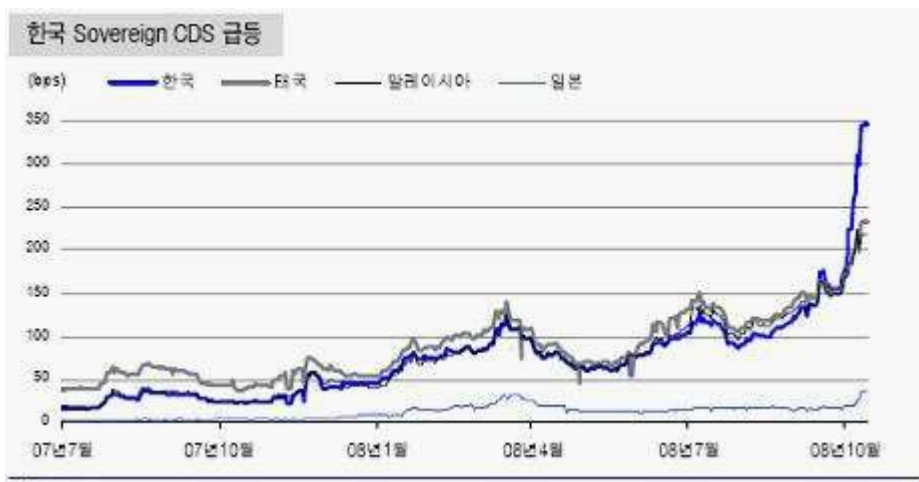
이미 기정 사실로 보고 각 개별 기관 차원에서 대비책 강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

현재 CDS 프리미엄이 402 bp 가까이 폭등 하는 양상 속에서

한국은 지금 현재 베트남이나 필리핀고나 동급인

국가 대외 신용도로 평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해외에서 PF 대출 부실과 연체율 문제가 부각 되기 시작했다.



현재 10월 말에 주의할 사항은 영미계 주요 빅 메이저 7 헤지 펀드들의

Book Closing (회계마감·결산) 을 앞두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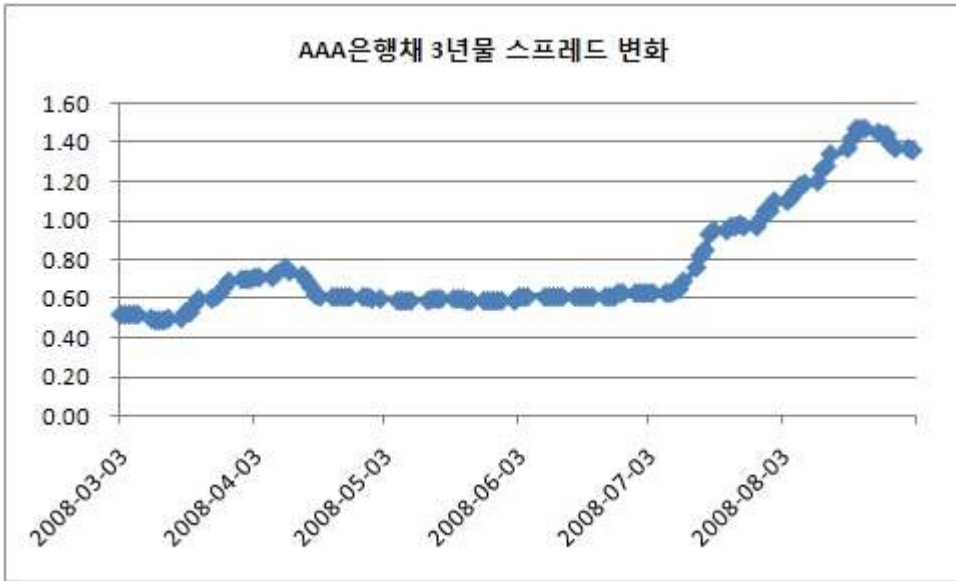
현 시점상 한국을 위시한 이머징 마켓 상에서의 추가 포지션 청산 가능성이 농후해 진 것이 현재 판세다.

이 경우 선 순위 포지션의 대상 국가 그룹군은

현재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와 PF 부실 문제가 겹친 한국이 제 1 순위 타겟인 상황 속에서

S&P의 국내 은행 신용등급 조정결과

기관명	조정전	조정후
국민은행	A Stable	A Watch Neg
우리은행	A- Stable	A- Watch Neg
신한은행	A- Stable	A- Watch Neg
하나은행	A- Stable	A- Watch Neg
하나펀딩	BBB Stable	BBB Watch Neg
외환은행	BBB+ Stable	BBB+ Watch Neg
우리금융	BBB+ Stable	BBB+ Watch Neg
신한카드	BBB+ Stable	BBB+ Watch Neg



현재 국내 금융권의 잠재 리스크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누어 진다.

1. 장. 단기 외채와 해외 차입부담금을 포함한 총 4225억 달러 내외에 달하는 달러 외화 부채의 롤 오버 관련 리스크
2. 환율과 주식 시장의 과대 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주가 연계 구조화 상품들의 리스크 폭등.
3. 회사채 금리가 8%에서 10%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른 채무자들의 금융 비용 상승 위험.

4. 일반 상업 은행들의 기존 대출 구조가 2004년도 이후 48%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 이 중에서 506조 7천억 가운데 390조 가량이 중소기업과 건설사에 대한 대출이며

09년도 4~6% 내외의 디폴트 상황시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 제 1 금융권 내의 상업은행들은 최대 14% 씩 장부 가치 폭락이 불가피한 상황.

현재 제 1 위험 그룹군: 대#은행, 부# 은행.

제 2 위험 그룹군: K#금융, 신#지주, 외#은행.

(실명 거론은 절대 안 하겠음.. 각자 알아서 판단 요망. (주))

현재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는 건

PF 부실 과 동반해서 부동산의 자산 디플레이션의 시나리오의 실현화.

이 경우 부동산 대출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신용 리스크 부담을 은행권 자체에서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하는데 이걸 일단 토지에 대한 버블은 미래에 대한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자산 가치라는 것이 현재 자산 가격에 + 플러스 되서 선방영 되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디플레이션 리스크 요인은 심각한 자산 손실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하는 경향이 강하다.

토지 수용을 포함해서 개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비용의 상당 부분이 토지 가격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인데 현재의 지방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의 잇따른 주요 건설사들의 도산과 추가 개발 계획 포기 및 미분양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 될 경우 토지 및 부동산 실물 자산 가치의 유지가 어려워 지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돌아가는 판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성이 요구 되는 상황.

이제는 실물 분야로 본격적인 포커스가 맞춰 지는 상황.

더 이상 펀드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이젠 현재 시점상 더 이상 무의미 한 상황.

반드시 명심할 건...

1. 첫!,,,,,,,침묵은 금이다..

2. 지금 앞으로 3년간 모든 일은 쥐도 새도 모르게..

반드시 명심 하도록... 이상..

-늬은이가-

솔직히 뇌 구조가 의심스러운 상황. (2008.10.20)

현재 CD =6.12 CP=7. 11

이걸 가지고 인정화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젠 할 말 없음...

왜 정부 마지막 비상 플랜이 나왔는데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 하지????????????

한 마디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이젠 10년 전처럼 또 다시 알고 당할 수는 없다.

애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안 당해 봤으니까 지금 이걸 위기감 조성 어쩌고 헛소리질이지.

그 때 온 몸으로 핵태풍을 맞아 본 사람들이라면
학습 효과의 교훈상 절대로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아직은...아냐.....암.....

또 다시 알고 속아 달라는거 우리잖아???

솔직히 이젠 뇌 구조가 의심스럽군...

어제 마트 가서 나도 놀랐다.. (2008.10.20)

딱 가면 행동 궤적이라고 해서 사람이라는건 일정한 패턴적 습성이라는게 누구나 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그 방향대로 돌게 되어 있지.. 그런데 유심히 보는데 한가지 특징을 발견했지.

바로 제품 외장 디자인이 바뀌거야. 외부 케이스 디자인이 바뀌거나..아니면 포장이 바뀌거나.

한 마디로 양이 줄어드는 거지..

한국은 딱 정해져 있다.

가격을 내려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관 없지.. 왜냐고?.....

내용물을 줄이면 되거든.. 그걸로 가격 상승분을 다 상쇄 시켜 버리더군.

그게 아니면 가격이 오르는대신 제품 외장 디자인은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그대로인 대신 외장 디자인이 교묘하게 줄어들거나..

그리고 과자 같은 건 안에 헬륨 가스라고 하나?...

2/3 이 가스야.. 포테이토 칩 한 봉투 집어 드는데.

삼프는 딱 보기에다 슬림화 되어 있고. 농산물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교활한 건 대단하더군. 어제 가서 새삼 혀를 내둘렀다.

이런식으로 계산대에서 계산하면

일단 피부로는 사람이라는게 심리적으로 물가 타격이라는걸 못 느끼게 교묘하게 장치를 마련 했더군.

실제로는 이미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말이지..

가서 그런걸 자세히 보면서 물건을 집어 들면서 느낀 점이야.

항상 일정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물건을 사다 보니까 확연하게 알겠더군....ㅋ.....

이것도 기업 전략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나 같은 노인네처럼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 가진 노인네들은 단 번에 알아 보거든.

왜 디자인은 바꾸니??????????

이런식으로 하니까 물가 상승률에 이런 변칙 변수들이 안 잡히는 거야..

교묘하게 통계의 함정을 이런식으로 빠져 나가지..미꾸라지 빠져 나가듯이...

그러면서 기업 영업 이익은 보존 하고 말이지..

ㅋ~~~~~

책상에서 숫자로만 통계 수치 때리면.....당연히 모르지.....

일선 현장에서는 변칙 룰을 쓰는데 말이지..

이 염병할..

살인적인 한국 물가...이젠 알고 당하자. (2008.10.20)

[표] 주요 식품류 가격 비교

품목	2007년 9월	2008년 9월
돼지고기(600g)	5880원	9900원
닭고기(1kg)	3500원	6400원
식용유(1.7L)	3870원	4670원
밀가루(2.5kg)	2790원	5300원
달걀(30개)	3850원	4650원
우유(1L)	1779원(2008년 4월)	2170원
참치캔(150g*3)	5100원	5990원
합계	2만6949원	3만9080원

(주: 9 월 환율 미반영 분)

1년 전 전년 대비로 봐도 현재 물가 상승률은 50% 이상 폭등한 상황..
 현재 10월 내의 환율 폭등 분을 감안할 경우 65% 이상으로 수치가 대폭 올라가게 된다..
 오늘 어떤분이 한일간 물가 상황을 비교한걸 보여 주셨다..
 그리고 지금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극단적인지 소름끼치게 놀랄 정도로
 이미 이 나라 물가는 이젠 한계 상황을 넘어 선 것 같다.

A	B	C
품목	일본엔화	원화 환산금액(100엔/1296원)
돼지고기썬것(100g)	154엔	1990원(원단위 절사)
닭고기 다리살(100g)	121엔	1560원
식용유(1L)	358엔	4630원
밀가루(1kg)	148엔	1910원
달걀(10개들이)	218엔	2820원
우유(1L)	178엔	2300원
참치(80g*4)	328엔	4250원
기저귀(44매)	1180엔	15290원

(주: 10월 19일 현재 기준 환율 적용시)

한/일 환산 비교	한국	일본
돼지고기(600g)	9900원	11940원
닭고기(1kg)	6400원	15600원
식용유(1.7L)	4670원	7870원
밀가루(2.5kg)	5300원	4700원
달걀(30개)	4650원	8460원
우유(1L)	2170원	2300원
참치캔(150g*3)	5990원	5970원
합계	3만9080원	5만6840원
물가 차이		한국의 약 1.4배정도
기저귀(60매)	27700원	20850원

결론: 도표상으로는 한국 대비 일본 기본 생필품 물가 수준으로 비교시
 일본이 1.4 배 정도 비싸지만 한국의 10월 19일 환율을 적용시 1.02로 사실상 매칭.....
 비교 우위 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가 현재 한국: 일본의 기초 생필품 물가 가격 대비 상황...

	한국	일본
2008년시급	4,000원	950엔 ->12,310원
시급 차이		한국의 3배

한국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급:3770원.. 일본 도쿄의 경우 766엔 (=9920원) ==>>> 2.6배..

일반 평균 대비 약 3배의 차이 ..
 일반 직장인 평균 시간당 임금 차이에서도 약 최소 2.2 배 정도의 격차..

(주: 인용 도표는 인터넷 도표를 참고한 것임.)

그렇지만 일본의 주거 비용에 따른 비용 계산을 합치면 이거 아니지 않나요???

결론은?..... NO.....

왜냐면 현재의 한국의 CD 금리가 오늘자로 이미 6%를 돌파한 상황에
 대출 이자는 연 9%를 뛰어 넘어 10%가 코앞인 상황에서
 일본 현지 월세 가격과 현재 한국내 부동산 포함 실물 자산 디플레이션 추세를 감안할 경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기존 상식의 틀이 깨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자기 입으로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 한다는 소리를 대놓고 하고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추가 우려로 인해 사실상 동결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 포함 일반 직장인
 시간당 임금 표준 대비로 최소 2.2배~2.7배 이상 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상...

기초 식료품 포함 기초 생필품 물가 수준은 한국:일본= 사실상 1:1 인 상황.

이건 현재 한 일간 경제 격차로 봐도 비정상적인 수준이며
 임금 동결과 개인가구의 금융 비용 상승에 따른 고통 지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살기 힘든 나라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 주는 상황이다.....

이젠 나가서 일본 물가 비싸다면 싸대기 맞는다.....

오히려 다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현재 기준으로
 약 1.7배 정도... 실질 생활상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물가는 이미 기형적인 물가 상황에 도대체 물가 대책이라는게 뭐가 있는지 의심스런 상황..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 되고 일본 대비로 피부로 느끼는
 물가 피폭 효과라는데 2배 정도 벌어지면..

그 땐 과연 어떻게 살아 남을까????????..

이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먹는걸 줄이기 시작했다....
 마트나 시장에 가 봐도 예전에 비해 절반 이상 유통 소비 인구가 줄어 들었다..

과연.... 어디까지 해야 숨을 쉬고 살만 하다는 소리가 나올지 의문시 되는
 2008년 10월달 가을이군..

아예 물가로 다 말려 죽일 건지..

결론: 이젠 사람들이 먹는 가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 하기 시작했다는건 심각한 상황이라는걸 의미 한다..
 한국의 60년대 부터 2000년대 까지 지금껏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한국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식료품 가격의 공급에 있었다는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설사 임금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그나마 사회가 무난하게 돌아간 핵심 변수는 물가 안정이었고
 그 중에 핵심은 이런 기초 생필품 가격과 식료품 가격의 안정화였다..

한 마디로 쌀 식량을 공급해 주는 나라였는데 이젠.....그것도 무리란 애기지....

그래서 이젠 소득 격차에 따라서 먹는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거 또 다른 사회 불안의 시한 폭탄으로 작용 하고 지금 그 타이머를 돌리고 있다..

한 마디로 미친거지..

나도 박정희를 별로 안 좋아 하지만....

그 옛날 박정희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제 1 화두가 쌀 먹거리 제공이었다..배 굶는이들 없이.....

난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분을 존경 하는데

지금 이 나라 미친 정부 애들은 이런 박정희의 경제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는 발끝에 때만도 못 따라 가는 수준이지.

그런 주제에 입만 쳐 열면 박정희를 써 먹는걸 보면 진짜 가증스럽다는 생각도 들더군..

니들은 챔피언하지도 않냐?..

이미 죽은 그 분을 지금 이런 개판으로 해쳐 먹으면서 들먹 거리는게?...

뻔뻔스러운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일본도 충격받은 한국의 살인적인 물가. (2008.10.20)

한국에 사는 주한 외국인들과 얘기 하다 보면

요즘 최대 화두는 단연 현재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한국 물가다.

거창한 주식이 어쩌니 월 스트리트 얘기가 아니다.. 한국 물가가 왜 이리 비싸냐고 이구동성이다.

거기서 이미 한국은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을 끌어 안고 있다..

초기의 물가 정책 실패에 따른 그 정책 실패의 폭탄을

이젠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게 현재 한국 2008년 도의 오늘 모습이다..

(주: 이 글은 현재 일본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한국 물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경고: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은 읽지 말기 바란다.)

일본을 와서 한국의 생활을 돌아보니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인 이라면 거의 다 해봤을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는 대체로 3500~5000원 사이의 시급을 줍니다.

대충 4000원으로 평균을 잡고 30일동안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72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만약 혼자산다고 한다면 방세(방세도 힘드려나요?)에

이런저런 공과금과 교통비 식비로 지출되고 남은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략 10만원 +-일거 같네요.

그리고 시급이 4000원인데도 과연 이 시급으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밥 한끼 만 먹어도 한시간동안 번 돈이 날라갑니다. 교통비로 따지자면 이틀치네요.

그러면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르바이트는 현재 최저 950엔인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의 가격이면 하지를 않기 때문에 1000엔 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서 제가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취학비자의 경우 하루 4시간 일주일에 32시간을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금요일로만 일하는 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달 30일에 토,일을 빼고 난 22일동안 4시간을 꼬박꼬박 일하면 88000엔 정도가 나옵니다.

이 돈이면 조금 저렴한 맨션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공과금과 교통비를 빼면 한달에 3만엔 정도의 여유돈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놀러가든 저금을 하던 무언가를 사던 할 수 있습니다. 겨우 하루에 4시간 일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급 1000엔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1000엔이면 밥을 두끼를 먹어도 남고(한국에서는 한끼) 하루 4시간을 일하면

그 달의 공과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우리 청년들이 현재의 시급으로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독립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급은 정말 최저생계비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먹고 죽지 않을 만큼의 시급만을 주면서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생필품이 오르고
 물가가 내리면 내려야 되는 생필품이 내리지 않고 멈추는 한국
 일본에 와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휴.....

더 웃긴건 제가 생활하는데 오히려 일본이 더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 교통비도 여기서 살 거면 정기권만 끊으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시급은 한국의 두배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 도대체 언제쯤이면 살기 좋아질까요...?



현재 한국의 물가 수준은 이미 일반 서민들이 감당을 해 내기에는
 비 정상적인 과도 이탈 탈선 기차나 마찬 가지인 나라다.

이미 한계 가정들의 숫자가 48만 가구를 육박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본도 놀랄 정도의 가공 스런 물가를 감수하고
 닥치고 살라는건 이젠 도저히 무리다.

차라리.....죽여라...

탈출 하든가..... 죽든가.....

그 잘난 영병할 애국심이나 나부랭이고 간에 이젠 도저히 못살겠다.

올 오어 낫씹..

솔직히 외환 보유하고 나발이고 간에 가장 크게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건
 은행 대출 이자와 교육비 문제...그리고 물가 문제다..

그런데 이젠 물가가 사람들 목을 조르고 죽으라고 한다...그럼.....

진짜 죽어 줘야 하겠니????????????????...응??????????????..

내가 볼때 이 나라가 원하는건 물가로 국외 탈출을 유도 하거나 인구 감소를 통해서
 747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안 보인다..

747 어떻게 하냐고?...

딱 한가지 방법이 있지....

바로 인구 감소..... 지금 인구 절반이면 그게 가능하거든....

2009년 경제 성장률 2.7%의 의미. (2008.10.20)

2009년도에 3% 성장 어쩌고 하지만 2% 대의 경제성장률이 나오는 곳도 있다.

저번에도 분명히 얘기 했듯이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3% 대에 접어 들면
 기업체 내에서의 인력 구조 조정이 벌어지고.

2% 대에 접어 들면 신용 쇼크라는게 온다..

문제는 이 신용 쇼크 부분인데 만약 내년에 2% 대에 경제 성장률에 진입을 할 경우에는
 09년도에 바로 이런 신용 누적 쇼크가 터지지 않는다.

2010년도인 그 다음에 그 신용 부분이 폭발 하게 된다.

아마 개인적 차원에서 가게 부채를 다 청산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공산이 크며

이미 기존 경제 성장률이 3%대가 기정 사실로 인식이 되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약 45만~57만명 규모의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 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선방어적인 고려로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미리 지금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싸구려로 개 돼지 처럼 부려 먹지는 않는다.

최소한 물가 대비로 먹고 살게는 해 주고 부려 먹어도 부려 먹지.....

이게 사람 사는 나라냐?..... 이젠 물가 비싸다는 일본 보다도 더 살기가 배로 어려워진 판국이니 진짜 못살겠다는 애들 천지다.

설사 내년부터 이제 가시화 될 구조 조정으로 회사 나와도 가족들 먹여 살릴 기술 하나 정도는 미리미리 직장 다닐때 배워 놔라.

이젠 그 경제 불황의 그늘이라는게 숫자로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늙은이는 이번 주말에 간만에 폴코스로다가 경마 경륜 카지노 포커 로 죽을때 까지 이빠이 한 판 벌이고 가야겠다..

왜냐고?.....노인네니까..... 노인네니까 이런말 해 주는거야.... 냉정하게..

나 같은 세상 다 산 늙은이들이야 빠징코 가게 가서 이빠이 땡기다 죽어도 상관 없지만 아직 젊은 애들은 자식 새끼들 핏덩이 키워야지..

안 그래?..

회사에서 술 마시면서 술만 마시지 말고 이런 구조 조정 리스트 같은거 있나 없나 은근 슬쩍 한번 떠 보는거 잊지 말고..

요즘에는 회사별로 이런걸 쥐도 새도 모르게 만들어서 준비 하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라서 하는 심각한 얘기야.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 경제 관련 기사를 자세히 보고 난 후에 느낀 것은..

이제 드디어 저강도 쇼크에 접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외국과 한국의 틀린 점은 사회 안정망이 한국은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노동부 장관이 최저 임금이 비싸다며 그것도 짝고 국회 의원 애들이 복지 예산 줄여서 중부세 깎자는 나라다..

이미 30% 이상 다 줄어 들었거든?.

그런 상황에서 이젠 최소 3년~5년 정도는 저강도 쇼크의 실물 경제 타격을 감수 해야 하는걸 각오 해야 하는 상황까지 닥쳤는데.

문제는.....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원 수로 3년 이상을 버티냐고.

지금 생활비로 쓰려고 은행 대출까지 받는 사람들 천지인 마당에.. 지금 개인 가구당 적자가 최소 - 40만원 이상씩 나면서 적금 깨고 대출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라 지금 전체 가구 45%다..

거의 절반이지..

이젠.. 환율이나 주식 나부랭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건 이제 늙은이의 노망인가?????????????????

진짜 무섭다.... 무섭다기 보다는 소름이 짝 끼치는게.....

날이 갈수록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외국어를 취업이나 시험용 문법 외국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젠 실전 회화 중심의 커뮤니티 회화가 몇 십배는 더 중요해 졌다는거지..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 가면 미국 애들은 영어말고

거의 배우는게 프랑스어 아니면 스페인어거든... 비지니스 할려면 스페인어는 필수지.

이젠 동일 문화권에서 .. 중국어나 일본어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이 되었다...

하다못해 국내에서 일자리 막히면 해외 나가서라도 일해야지 벌어 먹고 살꺼 아니냐고.

지금 국내에서 통계에 안 잡히는 사실상 실업자 젊은 애들이 280만명이야..
거기에 올해 대졸 취업률은 솔직히 50%.....

더 문제는 혼자인 2,30대 애들은 차라리 라면이나 끓여 먹고 버티지...
문제는 40대 이상 개인 가구들..

국제 유가가 이미 중동 애들이 손익 분기점 이하로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폭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100만~300만 배럴 까지의 감산 조치 검토가 나오고
문제는 중동의 유가 하락이 역으로 대중국 수출 감소와 더불어 무역 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점..차량 판매와 플랜트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게 가시화 되는 상황.

더구나 일반 주유소에서는 기름값을 못내린다...
3개월 대비 국제 유가가 거의 -48% 가까이 폭락해도 환율 폭등 상쇄분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사실상 -23% 내외로 반감.

그런데 고객들은 왜 국제 유가는 떨어졌는데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안 내려가냐고 성화..

환율 상승이 무역 수지 흑자에 긍정적이라며 역발상을 즐기라는데...
이미 중국 성장률이 9% 꺾이고 중국내 부동산 실물 자산 가격 폭락에 따른
실물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실업률9% 돌파는 기정사실에 10% 얘기까지 나오는 현재 상황상.....

무슨 흑자...

세금은 최대한 늦게 내고..... 식료품은 장기간 먹을걸 구입하면서.....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올 겨울 집에서 매 끼니 수제미나 끓여 먹으면서 버텨야지..

근데 혹시 지금 살면서 뭐 느끼는거 없어?.....

올 겨울에는 갑자기 관리비가 5만원..10만원씩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꺼야...

아마 예민한 애들은 눈치 다 챜을텐데???????

밀가루 사러 가야지.. 구루마 끌고 가면 한 두 푸대 사 올수 있거든...

핵심은 이거야.... 작년까지만 해도 먹고 싸고 입고

집에 불 때고 텔레비 키면서 생활 하는데 가게부에 빵꾸가 안 났는데
지금 2008년 10월달 현재는 개인 가구당 최소 - 40만원 이상씩 빵꾸가 난다는 거지.

이걸 개 구라라고 한다면 100% 이런 집구석 살림돌아 가는거 모르는 남자 애들이거나 학생애들 뿐이야..

이게 비정하고 잔인한 현실이라 이거지.. 이거..

이제 이거 어쩔꺼야???????

그렇다고 애들 먹이는데 이상한거 먹일래???

그리고 니들 집에 가서 반찬 투정 하지 마!!!... 반찬이 어찌고 저찌고 할러거든 나가서 투잡 쓰리잡

하고 난 다음에 반찬이 어찌네 국이 어찌네 떠들든가..

집구석에 있는 여편네들은 지금 그게 아니든???

한국의 신생 귀족 계급 탄생과 몰락의 명암. (2008.10.21)

한국에는 건설 귀족이 있다.

오늘 나온 신생 용어라더군.. 건설 귀족.....

" 오늘 왕께서 세금 9조원의 녹봉을 친히 하사 하셨다..

한국판 튜더스 3..... 왕조의 공멸 개봉 박두..

다른 일반 제조 업체들이나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나 자빠지든지 말든지...

수 많은 이들의 복지비를 30%~40% 씩 쳐 깎으면서
건설사들에게는 친히 세금을 하사 하시는 친절한 금자씨.

예전 도스토예프스키가 하는 말이 그 나라의 수준을 알려면
교도소 내의 범죄자들을 보면 알수 있다고 ...

진짜 이젠 뻔히 보이는구나..

미국에는 월스트리트 금융 귀족들이 있다면...

한국에는 여의도 건설 귀족들이 있다.....뿌드득....

농가 지원금도 은근슬쩍 깎으면서.....9조가 무슨 동네 개 새.끼 이름도 아니고...
농노들이 예전 재정 러시아 시대에만 있는 줄 알지?..
웃기지 마... 지금은 그 착취하는 방식이 좀 세련 되게 변했다 뿐이지
전혀 세상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크르~~~~~릉...
예전 머슴 살이 하던 때 생각 난다..
일제 시대때 집집 마다 보모들하고 아씨아씨 하면서 따라 댕기는 애들 있었드랬는데.
이런게 없어진게 한국에서는 6.25 전쟁 끝나고 부터지..
이런 신분제 질서가 사실상 없어진게 불과 채 50년 남짓이야..
60년대에도 이런 집들이 상당수였으니까..
절대로 착각 하지 말고 살아라....
위에서 내려다 보는 애들은 자유 어쩌고 떠드는게 가증스러워 보일 뿐이니까.
이런걸 모르고 사는데 매트릭스 속 시스템 인간인거지...
지금 세상에 바뀐건 IT와 매스 미디어..그리고 신식 건물들과 패션 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진짜야...그러니까 빨리 깨어 나라는거고..
나도 예전에 10대 때까지는 머슴 살이 하면서 마님댁 애기 업고 다니면서
똥 귀저기 같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경마장 가고 빠짱코 가잖아... 별로 세상 바뀐거 없어..
다만 껍데기만 바뀐거 뿐이지..

이명박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발언. (2008.10.21)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비정상적인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구팀에서 잘났건 못났건 간에 어찌되었건 감독이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지금 전반전 초반에 열세에 허덕이면서
팀 플레이 전체가 코너에 몰려 팀이 붕괴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감독이 뛰어 나와서 " 지금이 IMF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라고 지껄이면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걸 떠나서 황당한 것이다.

거기다가 강만수 코치는 중앙이 무너졌는데도 미드필드를 포기 하고 중앙에 올인 하라고 계속 주문 한다.

그러면서 감독은 팀 코치의 전력 분석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일언 반구도 없다.

그 사이에 미드 필더와 중앙이 동시에 위험해 지면서 팀 플레이가 지금 붕괴 직전이다.

그런 때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이미 게임 망했으니까 각자 개별 플레이를 하란다.

그럼.....

망할까????????????? 거기에 지금 베스트 11 다 힘든 판국에 건설 하나 불려다가
년 특별 보너스가 9조원이 나오니까 분발하라고 한다.

그럼....나머지 애들은 뭐야????????

한 마디로 사기 저하와 몸 사리기로 굳히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팀 코치 강만수는 계속 몰아 부치라고만 한다..

에이스 한명한테 특별 보너스 9조원을 주고 혼자서 마라도나가 되라고 해 봐야..

중앙 깨지고..미드필더 뚫리고... 애들은 이제 풀아서 몸 사리기에 들어가서

나만 나서 봐야 손해라는 생각이라는 계산기 때리면서

다음 2012년 이후에 포스트 시즌 준비 해야 하니까 몸 사리면서 체력 보존 해야겠다고 저른다.

그러면..... 게임 끝난거지...

7월달에도 3차 오일 쇼크 떠들면서 9월 과담 만들더니....

또 다시 안 그래도 불안감이 폭발 일보 직전인 시장에 핵폭탄 떨어 뜨린다.

이젠 피아 식별이 불가능 하다는 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진짜.....누구 편이얏!! 크르~~~~~릉...

지금 그라운드 선수들이 몸 사리기 시작했다...

마라도나 한 명 한테 9조원 특별 보너스 준다고

이 경기를 혼자서 승리로 이끄는 게임 메이커는 이 경기판에는 없다.

말로만 입방정 백날 허구헌날 떨어 봐야 지금 이 판때기에서 누가 믿냐고.

안 그래?????... 진짜 이젠 대가리 지능지수가 의심스러울 정도야..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말이.....버티기 들어 갔다는 말.....

이런 얘기 흘러 나올 정도면 게임 끝난거지.. 각자 몸 사려.

일본계 달러 자금에 굴복한 한국 경제 2008년 한국 경제 완결 (2008.10.21)

솔직히 말해서 이젠 하반기 환율의 추가 폭등은 기정 사실이다.

현재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한국이 23%로 단연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내 실물 경제 타격의 여파와 경제 성장을 둔화로 인한

대외 무역 수지 적자 기조는 현재 상황상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국내 부동산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통상 집 값의 70%를 은행 대출로 용자를 받아서 사는데 보통이다..

이런식으로 지난 10여년간 중국 주요 25개 대도시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데

올 들어 2/4 분기를 기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대폭락을 하는 양상에

연체율 급증과 이로 인한 금융 비용 압박으로 인한 소비 여력의 감소로

소비 시장도 현재 3/4 분기 -17% 정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중국/일본내의 소비 침체와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여파가

한국 총 GDP 에서 수출 비중 48%를 차지 하는 현 상황상..

대외 변수 요인에 의한 10월 대외 무역 수지 적자가 이미 기정 사실화 되는

현 상황과 1000억 달러 정부 지급 보장에 따른 의회 비준 결의 일정 지연에 따른 여파로

최소 11월 1째 주 내에 단기 급등 요인은 불가피 해 보인다..

현재 핵심은 결국 일본.. 앞으로 일본의 다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부 외상의

한국 국내로의 달러 차입을 해 줄것인가가 가장 핵심 관건이었으나

IMF 연차 총회에서 일본의 2조 달러 규모의 달러 유동성 공급을 해 주는 국가 그룹군에

한국도 포함이 된다는걸 간접 시사 함에 따라

사실상 일본계 달러 자금 수혈은 연내에 불가피한 기정 사실화 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정부 지급 보증 따위는 솔직히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안정 이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다.

결론은 실제 돈 줄 천 놨이 돈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느냐 마느냐 였는데 결국.....

일본이 답이군.....

단기 급등 후..완만한 환율 안정..... 대신에

이에 따른 대일 경제 존속의 심화를 넘어선 자본 종속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빠르면 10월말...늦어도 11월 중순이나 연말경에 메이드 인 재팬 달러 수송기가 올 것이다..

자금 규모는 대략 700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제로 보는 마지막 카드로 보는데 현실이다.

사실 일본 현지에서 일요일부터 일본 애들이 티비에 인터넷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지..

한국 거지 새.끼들이 또 돈 빌리러 왔냐느니 어쩌느니.

독도를 내 놓으면 달러를 빌려 줄 용의가 있느니 어쩌니.. 오만 더러운 소리에..

근데..어쩌겠어.....결론적으로 이게 마지막 방법이 된 마당에....

에~휴... 사쿠라 벚꽃 피는 오사카의 봄날이여~

니폰도.....이젠 또 다시 2000년 밀레니엄에 또 다시 사쿠라 광풍이 몰아 닥치겠구나.....

이제 일본 경제 종속은 기정 사실인데 문제는.. (2008.10.21)

이런 판국까지 왔으니 가식 다 집어 치우고
사실상 이젠 앞으로 일본 경제 종속은 기정 사실인데..

진짜 문제는

금산 분리 완화==>>> 일본계 자금 대거 유입===>>>대기업 은행 영업 시작===>>>소매 금융 확대.

이거란 말이지..

이제 금산 분리 완화로 인해서
대기업 삼성 은행 차리면 100% 일본계 자금 들어 와서
소매 금융으로 시티처럼 영업 시작할꺼란 말이지..

설마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은행 차리고 장사 시작할꺼란 생각은 안하겠지..

이때는 이걸 뭐... 완전 말만 한국말 쓰는것 뿐이지 경제는 재팬 코리아지..

금융이 일본계 자금 종속으로 넘어가면 다 넘어 가는거나 마찬가지로 뭐 말 다 한거 아냐?.

빨리 일본어나 배워 놔라...이젠 대일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만 다 산 늑은이가 볼때 아쉬운건... 앞으로 불어 닥칠 왜색 광풍.....

왜 역사 과목을 잘 공부해야 하나 하면 역사는 이런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
예전에 일본 애들이 1907년까지 한국에 1300만원 정도의 대일본 차관이라는걸 한국에 제공해 주는데
이 대 우리 조상님들이 벌인게 국채 보상 운동이었거든..

그래서 국채 보상 기성회인지 보상회인지.. 하는걸 만들어서 모금 운동까지 했는데
그 때 일제 통감부 탄압으로 좌절 되었다고 예전에 머슴 살이 할때
주인집 서재에 있는 책 많이 보면서 알았지.

솔직히 가식 다 집어 치우고 한국이나는 나라의 최초 금융 자본이라는게 생긴 건
일본 미쓰비시 계열의 은행들과 일본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고리 대금업.. 즉 사채였거든...

그래서 그런 자본 종속을 보다가 생기게 조선 은행이라는 관료 중심 민간 은행이었는데..
화폐 정리 사업으로 몰락하고 망해서 사실상 일본 금융 기관 종속===>>> 한일 합방...으로 간 것이거든..
요즘에는 을사늑약이라나?... 늑은이들은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해서.

대충 이런 시나리오로 일단 구조선 말기 금융과 민간 자본이 집어 먹히고----->>> 식민지..

이런 케이스인데 한국 금융 자본이라는게 태생적으로다가
일본 자본이 씨를 뿌린거라서 그런지 지금 정부에 있는 놈들은
솔직히 대일본 금융 종속성이 대단히 강한 놈들이지.

강만수만 해도 미국에서 벤치 맞으니까 바로 일본에 가서 콜 때리잖아..

이게 니들이 말하는 한국 경제 펜더멘탈의 실체야...
솔직히 한국 경제는 외부 자본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로 산업 시설 공영화로 큰 것이 진짠데
그 레버리지 받침핀이 일본계 자금이었으니 말 다한거지.

군사 외교= 미국..... 경제= 일본.... 사실상 일본 경제 자체가 대미 종속이니 그게그거지만.

예전 머슴살이 할때 주인집에서 저녁에 가끔 노래 부르면서 술잔치 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 때 보면 일본 사쿠라 피는 봄에 어찌고 하는 노래들 굉장히 많이들 불렀어..

그럼 난 애기 업고 나가서 이런 책 같은거 빼다가 밖에 나가서 모기 쫓는 향불 피우면서
그런거 보고 똥 귀저기 같고 했지.

진짜 그 실체를 알면 말도 못하는데...

지금도 나이 좀 먹은 노인네들 중에
일본 노인네들은 군가만 몇 시간이고 노래방 가서 가라오케 가서 부를 수 있는 노인네들도 진짜 많지..
가만 보면 다 저기 버마나... 말레이 전선에서 싸우다가 군복 대신 벅타이 부대로 일하러 간 애들이거든..
하기사 이젠 많이 들 뉘.졌지만 말야...다 그 꼬나풀이지... 지금 재경부에도 상당수 많을걸?
다 이런 이유야..

지금 현역 50대 후반~60대 재경부에 있는 애들이나 정부에 있는 애들 중에
일본어를 거의 현지인 수준으로 하는 애들이 장난이 아니게 숫자가 많을걸?.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 안하겠어... 영어?...영어를 목숨 걸지 마라.....
두루두루 인근 국가 언어를 배워 놓으라고..앞으로 5년 후에 이게 뎀 의미인지 알게 될 날이 올테니까.

노인네 말을 허투로 듣지 말고.....알았자???

.뭐 나아 이젠 죽으면 그만이지만 젊은 애들은 돌아 가는 판세는 알아야 미래를 읽고 대비 하지..
응?????

사람 죽이는 살인 연탄값 - 대국민 초도화 작전 1호- (2008.10.21)

실제로 한국에서 소요 되는 총 연탄 수요의 80%는 가정용 난방 수요다.

이중에서 올해 연탄 보조금 철폐로 가격 폭등은 이미 기정 사실...

그로 인해서 이미 장당 500원이 코앞.. 거기에 운송비용까지 합치면
올해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 될 판국이다.

더 웃기는건 올 겨울에는 하우스 과일 먹기는 이제 포기해야 할 꺼라는 사실..

국내 면세유 가격이 작년 700원에서 올해 현재 1060원대로

전년 대비 150% 폭등한 상황에서 내년 7월달부터는 면세유 경유 공급을 대폭 줄이겠다.

따라서 사실상 내년에는 하우스 농사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금 농촌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며 올겨울부터 당장

연탄 난방으로 대체를 하든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젠 연탄 가격도 살인 연탄 가격...

이로 인한 물가 추가 폭탄은 이젠 기정 사실이다.

올해가 사실상 하우스 농사 마지막 해라는데 할 말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면세유 경유 대신에 등유를 쓰라는데 문제는

등유가격이 리터당 40원 더 비쌀 뿐더러 열 효율은 70%선으로 대폭 떨어지는데
어떤 미친 놈이 쓰냐고 우는데 뭐라 그래?????..

크르~~~~~릉....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뼈를 망치로 부수듯이
모조리 다 밑에서 부터 하부 카테고리 부터 철저하게 초도화 시키고 있다..

진짜 무서운 놈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연탄 한장 얻어서 쥐포에 소주 한잔 빨러 가야겠다...

근데 불 붙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야.. 번개탄은 잘 안 주더라고.. 구하기 어렵다고.

사채업의 진실 (2008.10.22)

사채업자는 대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이자는 제 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요구하고,

4배 이상의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 한다.

만약 계약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작을 경우

이면 계약 등을 빌미로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거나, 주가 조작을 강요한다.

사채업자들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보통 특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를 약속한다.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잡는다.

이때 맺은 이면 계약에 적시된 특정 수익률은 보통 **4배 이상** 튀어야 하고,

3개월 수익률이 최소 10% 정도는 나와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만약 약속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사채업자는

담보로 잡은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돌려 회사를 부도 처리..

제3자 배정을 통해 신주를 배정받은 당사자가 기업인 경우 대부분 M&A와 관련됐다 .

특히 정체 불명의 개인이 배정을 받거나 배정을 받으면서

보호예수 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심중팔구 사채시장 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주: 보호 예수=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의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것은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했을 때 따르는 사고 위험,

즉 화재,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주권의 매도 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제3자 배정방식은 자본잠식을 당했거나 부도 징후가 나타나는 등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기업이 부실하다 보니 회사채 발행이나 주주 배정, 일반 공모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케 하는 것이라고 보면 정답이다.

(주:제3자배정방식증자(第三者配定方式増資)=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와 달리 특별법이나 발행회사의 정관 규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연고자 배정) 정부 등에 인수권을 주거나 차관선 또는 합작선과의 계약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기도 한다. 거래처 등 발행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줘 주식을 인수시키는 방법도 있다.)

2.주식담보 대출과 어음할인

주식담보로 1억 원을 빌릴 경우, 2~3배인 2~3억 원에 주식을 담보로 해야 한다. 제 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에 따라 물량 부담이 두 세배로 늘어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시 추가 변수와 함께 사채 자금 유입을 의심하면 80% 이상 틀림 없는 케이스다. 이 경우 최대한 빨리 손 털고 자금을 빼는 케이스.. 그나마 있을때 건지지 나중에 보통 이런 회사는 3개월 후 깡 처리로 부도 처리 되는 경우가 8~9할이다.

3.사채업자 3자와 짜고 경영권 탈취

자금 조달하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의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6~10%이상 금리를 물어야 한다.

(주:융통 어음(accomodation bill)=정상적인 상거래없이 단지 수취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한 마디로 초간단하게 말해서 정상 거래 없이 자금 마련 목적으로만 발행하는 어음이란 뜻이지)

어음은 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상태, 만기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뉜다.

A급 어음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할인율은 0.7%(연 8.4% 내외)

B급은 월 1%(연 12% 내외)

C급은 월 1.3%(연 15.6% 내외)

하지만 일부 예외 리스크 그룹군에 들어 가는 기업의 금리는 월 3%~5%가 넘어간다.

최대 주주가 주식 담보로 사채 사용==>>사채 업자가 담보 주식을 시장에 매도 처리==>> 주가 폭락==>> 제 3자가 실시간 매수==>>가공의 인물 X 가 최대 주주로 대표 이사 취임 및 경영권 획득.

문제는 사채 업자와 이 가공의 인물 X 는 연계 인물이란 점.

대주주 지분 장내 매각 공시가 나간 코스닥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담보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 (예: 두산 그룹 자회사 소유의 코스닥 기업 KSP의 경우)

이 경우 대표 이사로 취임한 가공의 인물 X가 회사 자금을 대표 이사 명의로 빼돌리고 증발 하는 경우.. 추적 불능..

결과는 회사 부도로 박살....

사채업자+ 전문 기업 사냥꾼이 짜고 ==>> 기존 대주주가 회사에 지고 있던 개인적 채무를 인수 ==>> 사채업자와 짜고 회사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쉽게 인수 ==>>>

인수 후에 사채를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다음 회사를 또 다른 기업 사냥꾼에게 팔아넘기는 경우..

깡 처리 매물.... 대표 이사는 실종... 6개월 후 달동네에서 박스 줍고 계신 김사장님..

쩐..그 뭐라더라...하는 거에 나오는 건 솔직히 그건 드라마고..

실제로 일단 이 바닥에서는 기업 정보맨이라는 정보꾼 애들이 정보 소스를 제공해 준다...

이 제공 이메일은 보통 보름에 한번씩 오게 되는데

이번 최진실 자살 사건에서 짜라시...워라는 그건 2류 수준이고

진짜 유통 되는 정보 거래망에 1년이나 6개월에 천만원씩 주고 제공 받는게 있거든..

이번에 최진실 사채설 같은건 사실 짜라시로 초보들 밖에 취급 안 하는거고...

진짜 정보 소스를 고액에 파는 애들은 따로 있지.

말 그대로 진짜 대기업들이나 주요 기업 본부장 수준에서 별도로 보고 받는

정보 라인은 그런 증권사 사설 짜라시가 아니라 사채업자들하고 똑같이 받는 애들이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기업체 선후배.기자들 .
내부에 심어 놓은 내부자 정보 라인에 또 정보 유통업에 종사하는애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이 대충 한국에 4개 정도가 있는데 얼추 대략 이런 분들이 40명~50명 정도가 핵심이다.
지들끼리 모여서 정밀하게 다듬지..
그 다음에 정보 추가와 세팅이 끝나면 가공 처리를 거쳐서
1천만원짜리가 회장 비서실로 가는거야...
또 기업형으로 하는데는 파트가 나눠져서
업계 동향 감시. 경쟁사 기업 약점 ..의뢰한 경쟁사 회장 일가족 사생활 추적에 요즘에는
시민 단체 동향 첩보 분야도 있다더군... 업무 범위가 확대 되서
반기업 정서 차단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시민 단체들의 동선 차악과 스케줄 추적은 거의 CIA 수준으로 노출이 크비라는데
그것도 뚫어서 빼 오는 애들이지.

그럼 사채 업자 애들이 노트북으로 일단 랭킹 순위를 자금 여력 별로 리스트를 쪽 뽑아서
공략 기업에서 돈을 빌리게 꼬시지.
팩스나 전화..내부인 매수로....그렇게 1 단계 공략이 끝나면
위의 기본 절차나 변형된 절차 순으로 공략에 들어가서.. 회사 알맹이 빼 먹고 잠수.....
아니면 잠깐 사장 행세 하든가.

한국 사채업 메카는 명동 강남인데..
이 중에 메인 스트리트는 역시 명동 사채 시장.. 여기서 일본계 자금이 대충 62%..
지금 추적 되는 사채 이용하는 애들은 약 189만명 수준에
한국 법정 이자율 49%로 일본 현지에 비해 수익률 2배 수준으로 사실상 사채 시장이 오픈 된 나라지..

사채 업자도 두 부류인데... 개인 사채로 동네 양아치 처럼 하고 다니는 애들은..진짜가 아냐...
진짜 사채업자로 돈 만지는 애들은 위에 나온 기업 사채 부분이지..
이게 진짜 사실 알짜지..

안 되겠다... 최씨 노인네가 불러서 이만 가 봐야 겠다..
이제 고기 썰어서 다 구웠나 보다.... 오늘도 가서 한 잔 퍼 마셔야겠어..
얼마 안 남은 노인인데 술이라도 실컷 퍼 마시다 뉘.져야지...
오늘은 파전에 소주로 2차 시작해야겠어..
이제 2차니까 한 3시에 3차 가야지...
곤드레...만드레... 한잔 들이 부어...부어라..마셔라..
지금 술 한잔 퍼 마셔서 술기운에 제정신이 아니라
보다가 오타 나도 미친 노인네라고 욕하진 말고..
이젠 술판에 가 봐야지...머리 아파서 더는 못 쓰겠군...
역시 노인네가 나이는 못 속이나 봐.

역시 술을 접었을때 이 빠이 먹어 줘야 하는건데
난 젊어서 머슴 살이 하느라 그러질 못했거든..
이젠 한풀이 하고 뉘.져야지..

오만이 파멸을 불렀다. (2008.10.22)

그렇게 9월 위기설 말하고 11월 물가 대란을 말해 주면서 7월달,8월달에.....
심지어는 6월달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사방에서 말을 해 줘도.....
그 미친 9월 괴담 타령에 배후 세력 타령으로
이젠 손을 쓸 타이밍을 놓쳐서 대 파멸의 전주곡의 전야를 울리고 있다...
한국 같은 나라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6월말부터 줄기차게 얘기 했지!!!!!!!
이젠 물가다..11월 물가 폭탄의 대 서막이 열렸구나.....
멍청이들의 오만이 파멸을 불렀다.....소수의 자만이 다수를 지옥으로 내몰았다.....

이젠 닥치고 죽음의 사신을 기다리는 길 뿐.....
이젠 희망을 꿈꾸기에는 손 쓸 타이밍을 모조리 다 놓쳤구나..
오로지 남은 길은 지금 현재 일본 애들이 동아줄 내려 주기를 기다리는 것 뿐.....
세상만사 자본이란 절대로 공짜란 없다고 얘기 했지.....
돈이란 건 공짜가 없다.....
반드시 그에 상응 하는 대가라는걸 지불하도록 강요하지..
웃을 벗든.....장기를 꺼내게 배를 가르든.....
한국이라는 나라의 웃을 벗고 몸을 바치라고 강요할 것이다.. 범 국가적인 강간을 당하는거지.
참.....대단한 나라구나.....이젠 목욕 재기 하고 주인님이나 받을 준비나 하렴.....
부산에서는 달려 모으기 운동도 하고 있더군???.
벌써 5억 달러나 쳐 모았다고 자랑 하건데..... 순간 미치게 아닌가 하는 착시 현상이...
크르~~~~~릉.....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이젠 그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를 각자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젠 리어카 수세미로 청소 하러 가 봐야겠다...
이젠 12월 위기설이라고 다 수근거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그 원숭이 대가리 애들의 대응책이 궁금하구나.
그래 봐야 이제 남은건 니폰 뿐이겠지만
이젠 제발 일어 나지 말라고 빌었던 자산 디플레이션이 터져 나오는군..
완벽하게 시나리오대로 가는구나..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서 소주나 마시렴...청소 끝나고
김치 빈대떡 10장 술안주로 미리 부쳐 놔야겠구나.
이젠 손을 쓸 대책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다.. 참 자랑스런 대한민국이구나..
~ 나라사랑 보우하사..길이 보존하세...~ 영병 조까는 소리 하네.
나를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했지..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위험 감지를 했으면
한국 경제 같은 이머징 마켓 경제는 선방어를 하는게 핵심이니까
최대한 빨리 3개월 전부터 손을 써야 한다고.
이젠 닥치고 태풍 맞을 준비나 하렴...
그리고 쪽팔리다는 개소리나 하지 말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건 잊지 말고.
그리고 김치는 도시락에서 냄새가 풍기니까 웬만하면 김치 볶음으로 해 가지고 다니렴..
사무실이건 일터에서건 밥 먹는건 좋은데 냄새가 남는단다..
크르~~~~~릉..... 야생 늑대는 지구가 망해도 살아 남는다..
반드시 명심하고....
-늬은이가-

비관론이라고만 씨부리지 말고.....가르쳐 줬으면 대비라는걸 했어야지..
멍청한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금 모두를 생 지옥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 나라 민족은 학습 효과라는 것도 없는 닭대가리들인지 새삼 놀라울 정도다..
이젠.....포기.....
하기사 나같은 늬은이야 술이나 퍼 마시다 뉘.저 버리면 그만이겠지만 말야....
나도 서점 가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성공 한다니 어쩌니 그 댐 책들 수백권은 봤거든?..
근데 세상만사 동전의 양면과 같은것..

비관론이라는게 멍청하게 방구석에서 비관만 하다가 뉘.지라는게 아니라
그 비관적인 상황에 맞춰 헛징 안전 전략이라는걸 세워서 대비를 하라는
선방어 전략이라는게 핵심인 건데 이 등신 같은 나라는
공포감 조성 어쩌고 마녀 사냥이나 쳐 하다가 이젠 손 쓸 때도 다 놓친 거지...

괴담 타령 하면서 마녀 사냥이나 쳐 하다 말야...지금 이게 괴담이냐?...모조리 다 현실화 된 판국에!!!!!!
리스크 메니지먼트라는 것의 실종과 개념 상실로
안전판이 사라진 메일 스트리트 실물 경제에 이젠 한겨울에 반팔티 한장만 입고 거리로 내 몰린 꼴이다.
그래..
참 니들 잘났다.. 참 잘나 빠졌어.

이제 남은건 오로지 일본 달러 공수 뿐이다. [249]

마켓에서는 정부 지급 보증 1000 억 달러 따워 같은건 아무도 안 믿는다.
오로지 최소 500억~ 700억 달러 규모의 외부 달러 차입 없이는
이젠 방법이라는게 없는게 솔직하고 비정하고 잔인할 정도의 현실이다.
민족적 자존심 어찌고 저찌고 하는 그 땀 개 뺨다귀 같은 소리 이제 집어 쳐라.
비정한 시장 논리는 지금 달러 수혈은 원하는거지 그 땀 말장난을 원하는게 아니다.
외국계 은행 지점의 대외 달러 공급 창구의 전면 봉쇄와
살인적인 이미 외화 차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베트남이나 필리핀 수준의 CDS ..

닥치고 일본 재무성에나 가 보렴...지금 기다린다니까.....자기 발 아래 무릎 꿇기를.
지금 일본 애들이인터넷으로 뭐라고 다들 씨부리는 줄 알기는 아냐?.
거지 같은 한국 애 새.끼들이 달러 구걸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현역 트레이더가 씨부리더군.
쳇.... 기가 차서 원..

이젠 달러 외부 차입으로 외화 유동성 강제로 돌리고=====
원화 유동성 순환으로 강제 순환 방식으로 자본 시장 돌려서 살려 내는 길 이외에는
이 나라의 선택이란 아무것도 없다..

미국....아니면 일본계의 자금 유입 없이는.....

이제 한국 금융 시장은파멸이다.....

이게 지금 잔인한 현실이야.....

남은 유일한 길은 대규모 달러 외부 차입 뿐이라고 예전에 얘기 했지!!!!!!!

10월달에 원 농의 얼어죽을 무역 흑자가 나!

10월달에 예상 무역 수지 적자가 이미 -27억 달러를 넘어간 판국에!!!!!!!1

입 닥치고 비행기 표나 끊어!!!!

이건 총만 안든 전쟁이야... 패배한 개에게는 변명의 여지란 없는 거고.

그리고 갔다 와서 소망 교회를 날도끼로 때려 부셔!!!!!!!..

난 도저히 이명박을 이해 할 수가 없구나. (2008.10.22)

완전 미쳤다고 할 수 밖에.

한미 공조를 떠나서 지금 미국 워싱턴에 직접 가서
달러 조달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모자를 이 판국에..

지금 달러 일극 체제에 대한 반대 급부의 논리로
신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자는데 찬성 거수기를 들어?.

이건 일국의 대통령으로 완전 미친 개 싸이코라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의 현재 입장상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분야에서 중립으로 모르쇠 전략으로 넘어가야지.

그럼 미쳤다고 노무현하고 김대중이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간 줄 아냐?..

예전에 98년 2001년 2004년도에 이런 유사 질문이 나올때마다

한국은 대통령과 정부 입장은 무조건 중립 전략으로 회피하면서 이해 득실을 따지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런 기초를 정면으로 뒤집어 엮고 나선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주한 미군 주둔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상쇄 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달러 수입이 필요한 절대절명의 이 시기에..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달러 일극 체제에 맞서는

반 달러 체제 기구 창설을 전면에서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니 지금 외국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다.

아니.....무능력하면.....말조심이라도 하든가.

지금 달러 부족해서 난리난거 안 보여?..

누군 미국애들 좋아서 지금 친미니 반미니 그 딴거 따지나?.

그리고 지금 주한 미군이 전쟁 역지력으로
동 아시아 지역 군사 역학 관계상 핵심 변수로
군사 경제에 주요 변수라는걸 몰라서 저런 닭대가리 같은 소리를 하나?.

대통령 본인이 설사 자기 입장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을 할 때는
국가 이해 특실이 먼저인데 저 닭대가리 치킨은 그저 생각 나는 대로 지껄인다.

그럼 일본 애들은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저렇게 미일 공조 따지고 미국 애들한테 기어 다니냐?

하여간...경제도 가뜰이나 벼랑 끝인데 이젠 대통령까지 등신이니....

내가 욕을 하자는데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야..
오죽하면 청와대 애들이 나서서 그것 오보라고 소방수로 나서냐?.

그냥...제발 입 닥쳐라!...더도 안 바란다.....

한 6개월만 입 닥치고 좀 기다려..... 이 사태 수습 할 때 까지..

진짜 다 말아 쳐 먹을래!!!!!!!!!!!!!!

이건 어떻게 노무현 보다 더 입방정에 등신이니..

지금은 미국 똥꾸멍 빠네 마네 그 딴 추상적인 소설 쓰는 애기를 할 때가 아니라..

일단 죽어 가는 놈 살려는 놓는게 최우선이라는 소리다.

나라 경제 다 망한 다음에 그 잘난 미국 타령 하면 뭐할래!!!!!!!!!!!!!!

-늑은이가-

이명박은 잔인하게 말해서 경제를 쥐뿔도 모르는 놈이야....

특히 거시 경제는 거의 강통 수준이지.

이 씨방세들아... 모르면 대학 교수라도 불러서 특별 과외라도 시키란 말이다.

모르면 배운다고 이 판국에 뭐랄 놈 아무도 없다..

언제까지 그 개 뺨다귀 씹어 먹는 경제 대통령 소리만 쳐 할래..

이미 무능력이 모조리 다 들통난지 오랜데..

이명박 이 놈은 경제를 모른다니까...

날이 갈수록 달러 해외 차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2008.10.22)

이제는 날이 갈수록 달러 해외 차입의 중요성이 핵심 변수 중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달러 지급 보증 1000억 달러는 장난이 아니라 아무도 안 믿는다..

사람이 믿으라고 할 때는 그만한 지불 여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믿는것이지
지금 국제 유가 예상치의 최저치 상황에서 3개월 원유 결재분을 제외하고도
미달되도 너무 미달되는 수준이다.

이미 한국 CDS 가 500 bp 를 뚫었다.

CRS=0.55%로 CRS 레이크는 CDS가 453을 넘어가자
전일 대비 -0.75%가 폭락하면서 사실상 장내 CRS=0 인 상태다.

이 CRS=0 라는 것은

한 마디로 초간단하게 말해서 달러를 빌리고

원화를 맡기는 원/달러 스왑 계약시 달러 차입에 대한 이자를 주는 대신

원화 이자는 단 단 푼도....즉 원화 이자분= 0 를 의미 한다.

지금 한국 국내 금융 기관들의 달러 차입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수치이며 달러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걸 의미 한다.

현 정부 들어서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건

07년 4/4 분기내의 국내 외환 시장 대비로

현재 08년 4/4 분기내 국내 외환 시장은 현물 시장의 규모가 30억 달러 미만으로
그 규모가 1/4 수준으로 반에 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 들어서

말 그대로 지금 시장 자체적인 달러 유동성 공급은 거의 사실상 마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거기엔 선물환 시장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3개월 이상 끌어 왔다. 외환 현물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5% 수준인데 지금 당장 급한 판국에 사방에서 아우성 치면 환율은 계속 쳐 올라 갈 수 밖에.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왜곡으로 정부에서 300억 달러를 퍼 부어 대네 마네 해도 지금은 씨가 안 먹고 CDS는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길은.....

10월말~11월 중순경까지 사실상 일본 아니면 미국으로 부터 최소 500억 달러 이상 차입이 불가능 할 경우 연말 환율이 얼마가 될지는 지금 상황상 아무도 장담 못한다.

다만 10년 전 데이터상으로 시뮬레이션 유추상 현 상태가 2주~ 17일 방치시 12월 중순경에는 환율이 맥시멈 1800원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심각한 위험 수준이라는 것이다.. 만약.....11월 중순까지 외부 달러 차입이 없을 시.....난 100% 달러에 올인 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이미 10년 전에 금까지 바쳐 가면서 애국할 만큼 했거든.....

사실상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이제.....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래 버린다면 이젠 모델에 적용 가능한 유동 변수는 극도로 제약된다..... 그러면 답은 너무나 뻔한거지.

세상에 1+2= 3이라는걸 모르는 바보는 없지 않은가?..

크르~~~~~릉..... 이게 지금 말 장난 하는걸로 들리지?...

하지만 여태까지 단 한번도 말 장난 같은건 해 본적이 없거든???

나 아직 노망 안 났다..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살아 남는 길은 일단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한다는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건 어디서 뭘 하든 행동 수칙 ABC 가운데 제 1 절대 원칙이지.

4일 연장 계속 쳐 마셨더니 이젠 오늘은 하루 쉬어야겠어.. 어제 먹다만 소주 반병에 빈데떡으로 마시고 자야겠다..

이건 나라가 산으로 가네.. 점입 가경이구나...

크르~~~~~릉..... 빨리 무당을 불러서 고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건지는 이젠 나도 모르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살아 남는 유일한 길은.....이제 그것 뿐이야..

-늪은이가-

집에 있으면 증권사에서 전화 온다. (2008.10.22)

농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집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적금 통장및 주식,채권.. 월급 통장부터 보험까지 모조리 다 꺼내서 빨리 긴급 점검에 들어 가라.

현재 고정 자산및 유동 자산 수입 내역이나 배우자 월급이나 보너스가 은행 이자나 다른데로 흘러 들어 가는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집집마다 남편이나 마누라가 몰래 주식 신용 폴로 땡겨서 몰래 주식 투자 하는 집들이 한 두집이 아니며 오늘도 은행 가니까 창구에서 왠 50대 초반쯤 보이는 여편네하고 남자 하고 난리를 치더군.

그게 몰래 대출 받아서 몰빵하다가 주가 폭락해서 갹통 되니까 은행 쳐 들어가서 보니까 집을 담보로 얼마를 꺼내 썼네 마네 난리를 치는데 말 들어 보면 요즘에는 저런거 싸움 뜯어 말리는게 하루 일과란다.

더구나.....예전 주가 올랐을때....집에 전화를 해서 주식 하라고 부추긴 놈들이 증권사 놈들이거든.. 전화 외판 영업.

그렇게 해서 지금 몰래 주식하는 집구석 여편네들이 한 두집이 아녀.

일단..... 부동산 등기부 부터 모조리 다 대출 유무 확인 절차 들어 가고.

2단계로 내 월급 통장이나 배우자가 월급받아서
은행 이자를 월급 받은 걸로 몰래 때려 박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걸
집에 있는 통장 밑 거래 은행은 모조리 전화로 내일 다 조회해서 반드시 확인 하고 빨리 해결해라
그리고 대출은 신용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모조리 다 대출로 돌리든가 빨리 해결하고.....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남편이나 마누라 몰래 은행 이자 때려 박는 집도 가만 보면 한 두집이 아냐.
지금 이거 농담 아니거든?.....

지금 당장 집 문서부터 조회해라....
주택 담보로 은행 대출 몰래 했는지 알았는지.. 그리고 인감 관리 잘 하고..
장농 서랍 열고 안에다 숨겨 놓으면 마누라가 그걸 모르니?????...
다 알지... 숨겨 놓으려면 좀 잘 숨겨 놓든가... 그리고 집문서 없어도 대출 가능하다...
갑자기 어떤 서류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인감만 가져 가고
은행에 수수료 5만원만 주면 집 문서 없이 해 주는게 있어..
은행 가서 여편네들이 집문서 이사 가다 잃어 버렸다고 하면서
은행 공증 변호사 쓰는게 있거든?..
그럼 돈 5만원인가 내고 종이 하나 주면 그거 쓰고 지장 몇 번 찍으면 자동 처리돼.
은행 가면 제일 많이 써 먹는 수법이 집 문서 이사 오다 잃어 버렸다가야..
이게 창구에서 듣는 변명 양케이트 1 순위지..
가증스런 여편네들.
그게 집 문서 없이 하는 방법이야..
내 집문서 회사 서랍에 숨겨 뒀다고 대출이 불가능게 아냐..
당장..... 확인하고.....내 재산.....확실하게 지켜라..
집 안에 도적이 있다..... 창문이나 담벼락만 넘는다고 다 도둑이 아니다..
어딜 가든 항상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것이듯이..
반드시 명심해라....그리고 지금 궁둥이 떴고 당장 모조리 다 확인 절차 들어 가고..
시절이 하도 하수선 하니까 일단 집안 단속부터 해야지!!!!!!!!!!

100엔이 붕괴 되었다. (2008.10.22)

지금 100엔이 붕괴 되서 98엔이다.
내일 어쩌라고 저 지경인지.. 빈대떡 먹다가 깜짝 놀랐다..
진짜 이제 내일 판타스틱한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환율 방어를 할 돈이나 있는 건지 원.
이 상태라면 최소 내일 한 50억이나 60억 달러는 있어야 할텐데.
그나 저나 빈대떡이 진짜 맛있다.. 역시 비 내리는 날에는 소주에 빈대떡이야..
고추 썰어서 햄 잘게 썰어 김치에 파 같은거 넣어서 부치는데
한 6장 부치니까 반병 마시는데 2장이나 먹었네..
한 두병 더 까야겠다.. 어차피 맨 정신에 살기 힘든 세상 술이나 두병 더 사와야지..
이건 뭐.. 참... 말하기 거시기 하네..
웬 말인지 알지????...근데 내일 이제 어쩌냐?..지금 뉴욕이 저 따윈데.
미국에서는 11월 12월달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이 때가 전체 미국 소매점 매출 50%가 나오는 때거든..
근데 지금 월마트 매출도 줄어드는 판국이나 말 다했지.
카드 한도 제한으로 지금 미국 애들은 현금으로 생필품 사 모으고 있다잖아.
지금 LBO도 빼떡선 타고 위험한 판국인데.. 신용카드까지.
이젠 미국도 마트에서 현금 결제가 배로 늘었데..
이게 웬 의미인지는 말 안해 줘도 애기 다 한거고..
입만 아프니까.

드디어 한국은행이 원화 운전기를 돌리기 시작했군. (2008.10.23)

이제 한국 중앙 은행에서 원화 운전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은행채 25조도 지급 보증을 해 주겠다..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전부 다 사주지는 않겠지만 지급 보증은 해 준다..
지금 이 부분에 마켓은 의심을 하고 있지만 일단 사 준다는 가정하에 보고 있다.

그러면서 10.21 대책 나오면서 LTV, DTI 는 사실상 무장 해제 시켜 주면서
은행 보고 중소기업하고 개인 가구에 집 사게 돈 대출 풀란다.

근데 지금 은행 예대율은 이미 140%가 넘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글로벌 기준으로 예금: 대출 비율인 예대율이 90%를 넘어가면 이건 빨간불이거든.

근데 심지어는 지금 빅 7 제 1 금융권 은행들 중에
2 군대는 예대율 140%... 1곳은 이미 165%가 넘어서
말 그대로 지금 시한 폭탄 일보 직전인 데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은행에서 원화를 찍어서 공급해 주고
은행채도 사 주겠다고 나선 거거든..

왜냐면 은행채 막히면...회사채 금리 폭등하고...

그럼 CD 금리 못 잡으면 제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고 썬쇼를 해도 대출 이자 안 떨어 지니까.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 이거 하자고 한나라당 왜 미친 애가 씨부리데?... 이른이 기억 안나는데.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걸 하려면

지금 터키처럼 하루 호텔 투숙비가 1억 7천만 리라나 2억 리라 하는 그런 나라나 하는 거고..

리디노미네이션을 지금 하려면 그 충격 효과를 흡수 하는데 최소 3년~5년..

잠재 인플레이션 효과가 2.5%.....실질 파폭 파급 인플레이션 효과는 1년간 + 17% 정도.

비용면에서 2조 7천억 가량 소요..... 회계 처리 비용 증가..

이런 냄새 풍길 경우 자산 방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금 투자....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왜냐고?...이 리디노미 네이션이라는걸 할 때에는 부수적으로
반드시 동반 효과가 생기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거든..

그러니까 그 가증스런 쥐새.끼가... 어떤농인진 모르겠는데

지금 집값 떨어질 징조가 보이니까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을 1/1000 으로 하자고
들 썬시면서 바람 잡이 할려고 발악 하는거지..

그러면 역효과로 일단 자산 디플레는 막을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수작인데..

이걸 하려면 일단 2005년도에 신 구권 화폐 교환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과
그후 회소 10년 경과..

그리고 이런 복합 스테그 플레이션 상황이 아닌 인플레이션 압력만 있을 경우 변수.

그리고 환율이나 금융시장이 안정화 된 상태일때..

그런때나 하는거지 영병 무슨 닭대가리도 아니고..

지금 이 혼란 상황에서 삼국지 뺨치는 경제 대혼란기에

리디노미네이션 하자는 개소리를 씨부리는 미.친 .놈이 있지 않나..이거야 원.

하지 말자는게 아니거든?...사실 외국 살다가 한국 와 보면 깜짝 놀라지..

사실 외국 화폐단위가 한국처럼 이런 나라가 별로 없거든..

못사는 나라 빼면.. 유럽만 해도 한 20 유로 가지고 나가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택시 타고 개 사료 사고도 돈이 남거든..

근데 한국 오면 순간 적응이 안 되지...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바뀌어서 난리 치자는 뇌 구조가 의심스러운 뿐더러..

지금 이미 한국 아파트 버블이 -65% 가 현 상황상 버블이라는 분석 자료가 다 나온 상황에서..

내년 2009년 상반기 잘못 보내면... 농담 아니라 한국은 30년 장기 불황이다..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지?..

일본이 부동산 쇼크 극복 하는데 거의 헤이세이 이후 12년 가량인데
일본 시물레이션 모델에 한국 대입하면 파급 년수가 31.5년 이야.

거기에 지금 윤전기 돌려서 저런식이면.....
올 겨울 물가는 둘째치고 환율 추가 상승 압력은.....

이제 기정 사실 같아 보인다.

날이 갈수록 상상.....그 이상을 보여 주네...

크르~~~~~릉.....

혹시나 했더니..역시 기대를 안 저버리는군...

결국 LTV, DTI 무력화 시키는거 보라..

교활한 쥐.새.끼..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대혼란기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니..

이거야 말로 완전 싸이코 패스지..

정말 이 나라 애들은 판타스틱한 애들 많은거 같어...,

빨리 이꼴 저꼴 안 보고 댜.져야 하는건데..

왜 리디노미 네이션 하자는 줄 알아?.... 부동산 때문이야..

부동산... 이걸 하면 부동산 추가 상승 효과가 대략 7~15% 정도가 되거든..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걸 하게 되면

반드시 중간 과도기 갭이라는 완충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대략 1년~ 1.5년 가량 반드시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 경기 부양이 일시에 되는 타임이 있거든..

그걸 노리는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고..

이런 편법이 실물 경제 메인 스트리트에는 있지...

크르~릉..

마치 위험지에서 마교 애들이 사술이라는걸 쓰면서 정공법을 안 쓰고
사술을 부리는것과 같은 개념이야..

따라서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막대하지..

이제 교활한 싸이코 패스라는게 뭔 뜻인 줄 알겠지...

다 댜.져 버리든 말든 부동산은 잡고 보자 이거지..또라이 새.끼들.

-늑은이가-

전략게임- 2008년도에 필요한건 만슈타인의 게임이론. (2008.10.23)

지금 ..간만에 집에 뒤적거리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수집해 놓은게 있더군..

이름하여 만슈타인.... 히틀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건 전략가인 만슈 타인 때문이었다는게 핵심이었다..

만슈타인은 나치당에 가입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슐리펜 계획이라는 걸로 프랑스 점령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만슈 타인의 전략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 재기를 한다..

그 당시 2 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전차 보유 대수나 항공기 대수에서 독일에 밀리지 않았다..

근데 초반에 압승을 거두었고 프랑스는 먹혔다..

그 이유가 바로 전략과 전술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전략은 스키를 타기 좋은 스키장을 찾는 것이고..

전술이란 스키를 잘 타는 기술적 스킬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그럼.....과연 나는....전략적 차원에서 인생을 접근하면서 여태까지 살았나?..

아니면.. 전술적 임기응변의 차원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살아 왔는가?..

혹시..이런 생각조차 해 본적은 없는가?.....

혹은.. 사업이나 가게 문을 열 때....이런 개념적 접근이나... 게임 이론이나...

아니면 최소한 소매점 분석 같은 차원에서

내가 문을 열려는 가게 위치상의 품목 선정이나

어떤 분야로 가게를 열건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본적이 있는가?..

막연하게는 생각을 해 볼수 있지.... 대충 뭐가 좋겠구나..

하지만.....구체적으로는?.....비교 우위로 보는 방식으로는?.....

아니면 성공 확률을 따져 보거나 아니면 어떤 품목을 놔야

매상이 올라갈 건지에 대한건 생각해 본적이 없는가?..

우리는 늘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집어든다..그럼 바코드를 찍지...근데.....

그 바코드는 계산만 하려고 찍는게 아냐..

그 상품 품목이 본사 데이터 베이스로 가서 컴퓨터가 통계 분석이라는걸 해 준다..

그럼 그 지역별 상권에 그 편의점에서 주로 매상이 잘 나오는 품목이 가게내

평균 신장 높이에 가장 눈에 띄기 좋은 선반이자 접근성이 가장 좋은

A 클래스... 그 다음 B 클래스... C 트라스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그 곳에 상품이 계속 바뀌어 진열되 매상 극대화 효과를 꾀하는 것이다..

이것이 편의점 비교 우위 판매 전략에 따른 매상 극대화라는걸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케이스다..

그럼...이런게 가게에만 적용이 되는건가...

과연 전략적 접근이라는게 어느 특정 집단이나 회사내의 전략 마케팅에만 한정이 되는가..

아니다..... 살면서... 물건 사면서... 가게 열면서..회사 다니면서..학교 고를때..

결혼할 여자나 남자 만날때.. 사고 터졌을때.. 죽을때까지 적용된다.....

이걸 흔히 게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전략적 사고[예일대학식 게임이론의 발상] - Avinash Dixit/Barry Nalebuff

라는걸 보면서 새삼.. 살면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 미스로 인한

굳이 치루지 않아도 될 꼴을 보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면서 살게 되는가 하는걸 느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게임이론이라는걸 봤는데...

딱딱한 수식적인 게임이론보다는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실생활에서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게임이론이라는걸

각자 개발 시켜서 적용하면 살면서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다음에는 무슨 게임의 기술인가 뭔가.. 포카 게임 하는거 말고..하는거 볼려는데..

이런 마인드나 틀을 짜서 사고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해

상황 판단을 하는게 살아 가면서 늙은이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말이지..

이런 개인적인 단련이 되 있으면 웬만한 일이 닥쳐도 당황하거나

섬부른 판단 미스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을 확률적 가능성이 대폭 줄어 들거든..

뷰티플 마인드 주인공이 바로 그 농인데... 참..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건 만수 타인 같은 애가 필요하다..

만약 이명박을 지금 게임 이론에 적용 시킬 경우 예상 임기 연수와 확률 변수 조합은???.....

그럼 아주 재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지금은.....강만수가 아닌.... 만수 타인 같은 전략가가 있어야지...

어차피 이명박 갈아 치우지 못할 바에는..

다 말아 먹자는거 아니면... 빨리 찾아서 갈아 치워라..

안 그럼 다 끝장이다.....

"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이라는 건 하루가 지연 될수록....

전체 집단 다수가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는게 늘어난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게임 이론 같은거 잘 배워놔라..
이걸 단순 재미로 보고 말거나 아니면 학문적 접근 말고 개념적으로 익히도록 노력해서
기본 틀이 잡히면 굉장한 인생에 플러스 효과가 온다..
이건 비즈니스 부터 인생에 살면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에~이쿠...그냥 만수 타인 다크 보다가 생각 나서 끄적 거려 봤어.....
애들 있으면 체스 마스터 10 같은거를 깔아서 전략 사고 스킬을 키워 주도록 유도 해 주고..
장기는 말 모양이 비슷해서 헛갈려서 체스가 재밌더라고... 3D 로 하면 나름 괜찮은게..
이런식으로 게임 이론 같은것도 보고 체스 마스터 같은 것도 하면서
가상 변수를 미리 고려 하는 트레이닝을 하면서 노력하는게
살면서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애들이나 아저씨나 이런 트레이닝에는 접근성을 높여 주는데는 체스가 좋지....
과연.... 킹을 잡을 것인가....아니면 퀸을 잡고 체크 메이트를 안 당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음이야.. 우리는 체스판에 말이고....
-늬은이가-

이런거 잘 보고 따져 봐서 지금 인생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가차 없이 인생 리모델링에 거시적 관점으로 보고 다 뜯어 고쳐라..
그게 살아 남는 길이야..
사람 사는 인생이란게.... 그렇게 무한한게 아냐..
나 같은 똥.질날 받아 놓은 늬은이야 술판에 빠짱코나 다닌다지만 말야..
젊은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늬은이의 노파심에서 오지랴인게야..

반드시 명심할 기본 행동 수칙 ABC 가운데
B는 어떤 분야든 접근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런 접근성이라는게 제약 받으면 어디서든 성공 가능성에 제약이라는걸 받게 된다..
불법적인게 아닌 이상 이런 접근성에 선을 긋거나 외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명심할 인생의 함정 가운데 중요 변수다.
항상 이런 실수를 함으로써 실패 가능성을 높이는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말이 선입견을 없애고 보는 시각을 키우라였지....
사람이라는건...막 사는게 아니다..
항상 사물이나 어떤 문제가 닦쳤을때 보는 시각적 차이나 관점을 가지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걸 철학적 접근에서는 사상적 접근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거창한 거 없어도 그냥 맥 놓고 사는 건 존재 이유가 없는 시체지...

가끔 자기 전에 내 존재 이유에 대한 개인적 성찰이라는걸 해 보는게
상위 레벨로의 발전적 인간으로 크는 계기가 될 것이야..
난...이미 타락한 늬은이지만.....ㅋㅋㅋ
이와 더불어 각별하게 살면서 조심할 것은..
" 절대로 자기 기만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명심...또 명심 해야 할 것이야..
" 철학적 배경이 없는 인간은 팔 빠진 찌빵이다.."
이게 뭘 말인지는 아는 늬은 알겠지..
사람이란게 일이나 뭘 할 줄 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이 다가 아니란 소리지..
그건 사회적으로 커 가는데 한계라는 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걸 뛰어 넘는게 이런 배경이란 뜻이야..
능력적 스킬 이외에도 기름진 밭에서 나는 콩과 척박한 밭에서 자란 콩이 틀리듯이 말이지..

이제 한국의 IMF는 거의 기정 사실로 보인다. (2008.10.24)

솔직히 현재 상황은 자꾸 이런 얘기를 나도 꺼내기 싫지만
비정하고 잔인하게 말해서 지금 미국 애들은
한국을 이미 IMF 시즌2로 보는게 기정 사실인 시각이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한국 대통령이나 강만수가 설친다고 수습이 되는 단계는
이미 정책적 통제력 상실 수준으로 외국애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IMF 에서 조직하고 있는 임시기구 성격의 "
이머징 마켓의 달러 유동원 지원 기구" 라는 걸 심의해서 조직할 예정인데.

그 대상 그룹군에 지금 동유럽과 브라질 멕시코 한국이 포함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IMF 체제로 들어 가는 지역 포커스는 동유럽과 남미계열 국가 그룹군이다..

거기에 한국이 끼어 IMF 긴급 구제 금융 대상 그룹군에 올라가서
지금 이사회 심의 의결 전 보고서에 대상 그룹군 명단에 들어 갔다는 사실은
이미 사실상 한국 경제 자체를 IMF 나 다름 없이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금융 규제 수위가 문제라면 문제인데 예전만은 못하더라도
통과가 될 경우 심리적 충격 효과라는건 일단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일본은 일본 재무성 단독 한국 지원보다는 미국과의 상호 공조 중요성 문제가 나오면서
일본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성 장관은 IMF 에 자금 수혈을 해 주면=====>>>
그게 한국 으로 거쳐서 올 가능성이 커졌다.

왜냐면 지금 현재 IMF 의 운용 가능한 예산 플랜이
2650억~3200억 달러까지 긴급으로 풀로 땡길수 있다지만
막시멈 수치는 지금 미국 현지 상황상 말 그대로 막시멈이고..

그래서 + 일본 재무성 달러 공급 이라는 투톱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돈을 퍼 부을 경우 1조 달러 예산 규모라는 게 나온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니다....

지금 11월 바로 전인 현재 상황상에서 볼때 한국 독자 능력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가서 800억 달러의 IMF 를 만들자고 하니 뭐니 난리를 쳐도
그건 내년 4~5월 이후나 가능할 뿐더러 일본 애들도 그럴지만
일본 애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직접 지원으로 공급하는건 다 거절이다..

한 마디로 먹혀 들지가 않는다는 소리다..

어떤 협상이건 간에 어딜가서든 기본중에 기본은 협상 자체가 성립하려면
서로 대등한 전력 우위라는 전제 하에 공평한 협상 결과라는게 나오는것이지..

이미 한쪽이 극도로 불리한 상황 하에서의
대등한 달러 스왑 요구나 조건 제시는 한 마디로 망장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본 논리라는건 공짜라는게 없다는 것이지.

지금... 진지하게 1997년 IMF 의 사례 패턴 싸이클 분석에 들어간 회사들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지금 모조리 입 다물고 난 모르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어쩌면.... 차마 이런말까지는 하지 않을려고 했지만...
예전에 이현재나 IMF 수습하던 경험 있는 애들로
비상 TF 라도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일건 상황에서 대기업 보고 투자 고용 확대 어쩌고 하는건..

솔직한 말로다가.. 기업 입장에서 해리포터 판타지 같은 걸로 밖에 안 들린다니까..
거기에 김문수가 경기도 지역 규제 철폐로 투자 유치 어쩌고 하는것도 사실상 말 장난이고.

국내에서는 일단 무조건 외화 유동성 확보가 되야==>>>

원화 유동성이 풀리면서 채권 시장 정상 가동==>>>

그 후에 증시 부양.....이 단계별로 이뤄 지는 구조지.

지금 단순히 연기금 때려 박는다고 증시 부양이 되는게 아니라니깐.

지금 봐라.. 한번..

지금 주가는 사실상 5대 이머징 마켓 주요 증시 대비로 비정상적인 폭락이다..
이건 애초에 몇개월 전부터 연기금투입으로 시장 왜곡이 극심해져서
벌어진 반발 작용 성격이 강한 것이다..

한 마디로.... 학교 운동장에서 땀별이 내려 치는거야...
이건 국제 달러 유동성 경색을 의미 하지.
근데 학교에서 체력장을 한다면 애들보고 장거리 마라톤으로 운동장 10바퀴를 뛰래..
근데 한국이라는 애가 초반 3바퀴째에 목이 말라서 거의 탈수 직전이야...
그 때 물을 주면서 탈수 증상을 서서히 풀어 지고
지구력이나 내성이라는걸 키워 줘야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한 일은?.
몰핀 주사기 들고 가서 주사 바늘 박고 뛰라고 하는거야...
그럼... 일단 히로뽕 쳐 맞고 잠깐은 가지..근데 이걸 리먼이 작살나네...
그러면서 이젠 CDS는 이제 태국보다 더 높아서 아예 후진국 취급..
한국 애들이 무시하고 깔보던 필리핀 보다 후진국으로 신용도 폭락...
갑자기 뛰다 보니까 이젠 운동장 밖에 원자탄의 버섯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
이 때도 달라는 물은 안 주고 몰핀 쳐 주면서 알아서 하라네..

이젠 독자 회생 아니면 IMF 인데..
이미 일본 애들은 한국을 사실상 IMF 에 들어 간다는 전제 조건하에 보고 있거든..
다만 차이는 예전에는 알만한 인지도 있는
대기업들이 박살이 나니까 엄청난 위기감으로 보였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 조용하지..
그건 제일 바닥인 중소기업부터 서서히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 인식이 떨어져서 그런거야..
한 마디로 97년에는 팔에 기부스를 했지만 기초 체력은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뼈부터 망치로 박살을 내면서
다리에 기부스 하고 휠체어 없으니까 목발 가지고 뛰라는 꼴이지.
대충.....이게 현재 돌아 가는 판세야..
애들이 이런말 하면 아직도 심리적 패닉과
그 추상적인 한국적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에 한국 경제에 대한 세뇌 효과 때문에..
한국이 국제 금융 쪽에서 대단한 나라로 착각 하고 선진국인줄 아는 애들 천진데..
좀 사실 황당하더라고... 현실 인식이라는것의 부재로.
한국은...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냐...
실제로 대만이 한국 일반 서민들보다 2배는 더 잘먹고 잘산다니깐..
부의 배분적 문제나 성장 원동력...
사회적 인식이라는게 지금은 베투 끝이니까 각자 개인적 대비 플랜의 중요성이 높아 간다는거지..
-늑은이가-

이젠 각자 심각하게 97년 때 사례들을 각자 보고 준비에 들어 가라...
지금은 막연한 기대 보다는 일단 안전 우선이니깐..

6월7월달에는 레이더에 폭격기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지금 11월 초입 전인 지금은 공습 경보 발령 했다고 보면 되는거야..

한마디로..

9월 괴담 어찌고 육감 떠는 애들이 본건 스텔스 폭격기였고....

아직도 니들은 이게 다 비현실적 괴담 같아 보이지?

빨리 밥이나 차려서 쳐 먹고 거울 보고 싸대기 좀 때린 다음에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 따위로 할래.

행동 수칙 제 1조가 뭐라 그랬어..

언제 어느 상황이든 사태 수습에는 일단 잔인할 정도의 현실 인식이 우선이라고 했지.
그래야 해결 수습책이 나온다고..

각자.. 준비해!!!!!!

크르~~~~릉..... 이젠 야생의 생존 본능을 살릴 때다...

이젠 97년 IMF를 극복했던 사례분석이 중요한 시점이다. (2008.10.24)

한국 경제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 이젠 최우선 제 1 절대 명제지..

하지만 지금 이시점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솔직히 이젠 가식 다 집어 치우고.

그런 자질 구레한 자존심이 어쩌니 한국 경제 펜더멘탈 어쩌고 하는 개소리도 걷어 내고..

진지하게 97년 그 당시 ...

IMF 를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 했는지 잘 따져 보고

일반 시민들이 살면서 극복한 사례집 같은 것도 보고..

그런 수기나 실생활에서 극복한 수기들도 찾아 보고..

그런 다음에 극복 할려는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 일반 가계들이 살아 남는 비상 플랜 설정이라는게 이젠 핵심이 되었다..

기본 행동 수칙 ABC 가운데 3번째는 문제가 닥치면 일단 "0" 로 돌아 가라.....

이게 살면서 왜 중요 하나 하면 사람이라는건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심리적 장벽이 있다...

자존심이라는 건 개개인의 정신적인 외부 충격의 방어 기재로써 작용하는
사실상 중요한 삶의 일부분인건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자칫...이런 것들이 현실 문제 인식에서
결과 도출시 오판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 같은 극사실 주의자들은 설사 자존심이 깨지더라도

극사실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자존심이라는걸 포기 한다.

이게 좀 황당해 보이지?... 이젠 사실 연습 없이는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야..

하지만 살면서 이렇게 중요해지는 순간이라는게 있거든...

누구나 살다보면 인생의 중대 결정이라는 걸 3~4 차례 씩 겪기 마련인데 ..

이런 함정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나이 불문..성별불문... 이런 게 필요 하거든..

그 다음에 0 에서 시작한 걸 바탕으로 플랜을 짜기 때문에
설사 외부 변수가 생겨도 대응력이라는게 생긴다..

이건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게 안 되면서 심리적 좌절이나 타격으로 자살 아니면

아웃 사이더로 자포자기의 길을 가는 애들을 여지껏 수십 트럭은 봐 왔기에 하는 말이야.

사람마더 워낙 천차만별로 가지 각색이라 딱히 표준을 말하기 어렵지만

대충 대비책 같은건 이미 예전에 다 말해서 간추려서 한 20가지가 되는데 이젠 이미 각자 잘 아시겠지.

지금 밖에 회오리 바람 몰아 치고 있다....

더 이상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젠 97년의 학습 효과라는걸 다시 꺼내서 대비를 할 때다..

나라의 운명 어쩌고 하는 신선 놀음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밥 숟가락 걱정이라는걸 할 때란 거야..

그래서 예전 사례집이나 극복 수기 같은걸 보는게 중요하고.

크르~~~~~릉..

야생 늑대는 눈 덮힌 시베리아 벌판에서 사냥 후에 한번에 먹이를 다 먹지 않는다.....

반드시 두 세군데에 먹이를 나눠서 보관하고 먹이감이 사라질 시기를 본능적으로 대비 하지.

-늑은이가.-

한국 CDS ..605.. (2008.10.24)

장외 CDS 620 폭등..

하루에 150 bp 수직 상승.....

솔직히 이제 두렵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다..

이미 CDS 가 터질 경우에 그 과대 변동성 국가 그룹군에서
제 1차폭발이 터질 가능성이 농후한 현재 시점에서.....

풍선 이론 알지.... 제일 약한 곳부터 터지시 시작 한다는거..

현재 한국 시장은 이미 정상 시장 기능이 마비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며..

정부 정책 통제력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는게 정답 같다.

진짜... 소름 끼친다는걸 처음으로 느낀다... 안되겠어..... 소주 한잔 마셔야지...

저 앞에 함바 집에 가서 클라스로 마시고 와야겠어..

진짜 맨정신으로는 버티기 힘들구나.

크르~~~~~릉... 아.... 나 미쳐...

-늪은이가-

이젠 더 이상 신선 놀음이나 할 시간이 없다. (2008.10.24)

더 이상 소망 교회가 어찌고 저찌고 강만수 타령이나 하고 있을 시간 따위는 이제 없다.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리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긴급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다 끝장이다.

대통령과 정부와 따로 분리 독립된 전직 IMF 때 경제 관료나 은퇴한 관료들을 끌어 모아
긴급 TF를 구성해서 비상 TF 는 어드바이스를..재경부는 드라이브로 추진력...
한국은행과 금리 정책 동조로 맞춰 나가지 않는 이상..

심각하고도 수습 불가능한 미래 가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이것도 안 되면 비상 임시 권한을 부여해서 최소 6개월간 사태를 수습해야 할 상황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숨길일이 따로 있지..

재경부에서 니놈들이 한국이 IMF 에서 논의 중인 달러 유동성 공급 국가 그룹군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게 사실이 아닌게 되냐?... 이젠 무슨 개 또라이들도 아니고 ..

지금 바라는데 외국 언론에서 립 서비스라도 아니라고

반박 보도를 내 달라는 그런거 같은데 이젠 속인다고 속여지는것도 아닐뿐더러

이미 알 놈들은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대세를 거스르며 흑세우민으로 아직도 그 미친 우민화 정책이 씨알이 먹히리라 생각하는게
전형적인 관료 주의에 물든 애.새.끼들의 샘플이구나.

강만수는 비정하게 말하자면 멍청한게 아니다...

강만수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건 심각하게 잘못 보고 있는것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인간이야..

어릴적에는 심지어는 신동 소리까지 듣고

관료 중에서도 출세가 빠르고 심지어는 학생 시절에는 글도 썼지.

문제는 이 인간은 전형적인 정책 기술자라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필요한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경제 학자 출신의 장차관이 필요한 거지

이 따위 법대 출신의 전직 정책 기술자가 필요한게 아니란 거지..

그러니 해법이라고 나오는 것이나

손을 써야 할 타이밍에 마피아가 어찌니 모피아니 지를 염병 골감을 떨면서

정부 내에 파벌 만들기에 열 올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다 알아 쳐 먹기 직전까지 온 것이다..

강만수가 왜 아직까지 건재 한 줄 알기는 알아?..

강만수가 10년 전 재임 시절에 심어 놓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에게다가
밑에 예전에 있었던 은혜 입은 놈들 심어 놓은 애들이
파벌 파워 그룹으로 정부 전체를 압박 하니까 의회에서 짜르라고 영병을 해도 안하 무인인 거지..

임태희가 강만수 라인이라면 ...말 다한거다....

강만수의 정부 조직 계보도를 보면 기절할 것이다..

이런 흡혈귀가 한국 경제를 통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한국 경제의 핵심은 환율 금융 시장에서==>>. 이제 키 포인트는 부동산과 금리.....
그로 인한 실물 경제 파급 효과..

은행에는 돈이 씨가 마르고 중소기업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환율 압박에 회사 운전 자금 압박으로 줄도산 직전...

일반 가게들은 은행 대출 이자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정신과가 대호황 특수기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내 몰리는 마당에..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내일은...내일은..... 그러기를 이제 11월 코앞.

이미 한국 경제는 3월달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귀에 못 대가리 박히게 말해도

정책 기술자 만수는 나몰라라에 미친 대통령은 지 멋대로 아마추어리즘으로 일장춘몽의 개꿈이로세.

그러더니 이제 5월 넘어가고 6월달 지나니까 이젠 인플레 폭등 리스크가 있으니

선방어 전략이 중요 하다고 또 귀에 못 대가리 박히게 얘기 하니까 나몰라라.. 수출 올인..

5월 말에 가니까 환율 변동이 이젠 거의 아시아 NO.1..... 등락폭이 25%.....

이걸 일본 산케이 니혼게이자이 아사히 다 떠들어 대니까 이것도 괴담...저것도 괴담.

그러다 7월 가서는 이제 9월에 위기니까 마지막 막차다.. 지금이라도 살려면 늦지 않았다고

사정사정을 해도 그 때가서는 물가가 심상치 않으니까

밖에서는 괴담 타령 하더니 물가 잡겠다고 본격 환개입....

7월 월초에는 난데 없이 대통령이 딱 나타나서는 3차 오일쇼크 발언에 외국 애들이 경악..

그러다가 10월달 오니까 이 모든게 한 방에 터져 나오면서 이젠 버랑 끝으로 몰리고

외환 채권 주식 시장이 모조리 다 쓰나미.....

채권시장에서 은행채 막히니까 예대 마진 평균 130%가 넘어 가는 상황에서.....

돈 가뭄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젠 부동산 자산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 집입으로

지금은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리스크 비용 상승 압력...

그렇다고.추가 담보 요구 해?????..그것도 아니지.. 원 투기꾼도 아니고 집에 3~4채도 아닌데..

거기에 지방에는 쌓여 있는 미분양 똥 치우지도 못하다가

정부 매입 한다고 설레 바리 치면서 신도시 발표..

10월 중순에 와서는 이제 보다 못해서 급하니까

그 잘난 허구헌날 좌빨 어찌고 난리 부루스 치던 애들이 만든

외환 보유고 2400억 달러 들먹이며 지급 보증 1000억 달러 소리로 연일 나팔수 동원.

근데... 그걸 이국 애들이 믿어?... 지금 국내에서도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러더니 오늘은 급기야 1000 포인트 박살 나고

이젠 900도 위험..거기에 IMF는 이제 준비 한다고 설치지..

무디스는 한국에 위기 어찌고 저찌고 오늘 어제 계속 들먹이지..

당장..... 비상 TF 만들어라.....

예전 고대에 있었던 원로원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냥 늙은이들 뉘.질때까지 자리 보존 하라고 있는게 아니라

국가 위기 때에는 나서서 숨겨진 힘을 쓰라는 것이다..

이젠 예전 원로원 노인네들 다 끌어 모아서

빨리 비상 TF 만들고 시장 안정화 시키고 청소 할 놈 정리 하고 사태 수습해라.

한 그럼.....그 잘나 빠진 니들 자존심 세워 주자고 전 국민들이 다 죽는다..

소수의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 다수가 피를 흘릴 수는 없다..

크르~~~~~릉.....

반드시 명심해....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비상 조치가 없을시에는
이제 이 나라 경제는 무정부 주의로 가자는 걸로 알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서 살아 남을 수 밖에 없으니가

-늪은이가-

역대 사상 최악의 아마게돈이 몰려 오고 있다..

이 나라의 잔인한 현실은 이런 초강력 액션 블록 버스터를 관람 하는게 아니라..

문제는 그 영화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는게 잔인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심각하다는거야.

크르~~~~~릉...

언제까지 니들 신선 놀음 말 장난 하는데 장단 맞춰 줄 시간적 여유 따위란 없다..

이제 놀만큼 쳐 놀았으면 파티를 끝내고 할부값 값을 공리를 해야지!!!!

안 그러냐!!!!!!

재경부가 괴담이라고 지껄인게 하루만에 현실화 되는 현실. (2008.10.25)

IMF 한국 사무소가 올해 철수 했다..

그리고 상반기 전까지는 불안불안해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비만 잘 하면 IMF 시즌 2는 없을꺼라고.

the Credit Crisis Spreads, South Korea Has Become More Vulnerable



is that the global credit crisis could cripple South Korea's banks, which rely more heavily on overseas borrowing than China's or Japan's.

As global credit markets have dried up, South Korean banks have scrambled to find dollars to repay maturing foreign-currency loans.

Woori Bank, one of South Korea's largest lenders, suddenly found itself unable to borrow dollars after last month's collapse of Lehman, a bank executive said. Dealers in the bank's trading room made frantic calls to big foreign banks seeking fresh loans, only to be told bluntly "no," said Jung Hyun-jin, an executive vice president in the bank's financing market business unit.

Worse, foreign banks refused to roll over many existing loans, forcing Woori to repay them as they came due, also in dollars.

With the bank using as much as \$200 million of precious foreign currency a week, Woori has stayed liquid thanks to dollar loans from the government, which has pumped tens of billions into banks, Mr. Jung said.

Recently, the crunch has begun to ease slightly, with some European banks like Deutsche Bank once again lending dollars to Woori, he said.

"International banks, because of their own problems, won't lend to us," Mr. Jung says. "We don't face a solvency problem. We face a liquidity problem."

Last Sunday, the government responded by pledging more than \$100 billion in loan guarantees and an infusion of \$10 billion in American dollars to prop up the Korean banking system. The government said the additional liquidity should help Korean banks repay or roll over the banks' \$80 billion in foreign currency loans that will come due by June 2009.

"The money will buy us breathing room," said Lee Dong-gull,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Finance, a banking industry research center, speaking of Sunday's move. "But there will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until we can find new sources of foreign-currency funding."

The long-term fear is of the effects of a global slowdown on South Korea's exports, said a

al citizens to line up at banks with dollars in hand, but restoring the image abroad that Seoul was unable to come up with a more effective response.

One nightmare scenario has been the image of South Korea once again seeking outside help, as it did in 1998 when the

tion's banks to weather were in the problem is access to foreign currencies. United firm

In the first six months of this year, ne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 Korea turned negative for the first time since 1989, when such figures started being kept, as foreign investors withdrew a net \$386 million,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Misty blame: South Korea's

ing Korea, the currencies of emerging market nations against the U.S. dollar in the last three

AGAINST THE U.S. DOLLAR

WORST PERFORMERS	
Colombian peso	-25.10%
Mexican peso	-25.41
Turkish new lira	-27.27
South Korean won	-28.03
Brazilian real	-29.95
Hungarian forint	-30.07

A rag-and-bone merchant pulls his cart in Seoul, South Korea. Large income under pressure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foreign investors withdraw

근데 지금 IMF 에서 한국 대출액을 218억의 상한선까지 끌어 올려서 준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한국 재경부 이 씹세들은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런건 다 괴담이라고 지껄었다..

하루도 못가서 뒤집어 지는 수준이 지금 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이다..

외국애들은 둘째 치고 이래 버리니까 이젠 한국에 있는 시장 주체는 물론 동네 개 새끼도 정부 말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골프장 그린피 애기나 쳐 지껄인다..

이걸 보고 일선 사장님 신문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버리신다...

이젠 심각하게 일본 부동산 실물 자산 하락에 따른
 시장 파급 여력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가서 대비를 해야겠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아닌 스테그 플레이션이라는 변수지.

● 한국경제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IMF	3.5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한국경제연구원	3.8
도이치뱅크	3.5
JP모건	3.7
UBS	2.9
무디스	2.2

이래 버리면 진짜 할 말이 없는거야.....
 지금 돌아 가는 판세가 이 정도란 말이지..

이 전망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악화가 안 될시에 수치인데
 3% 대 하방에서 일부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력 구조 조정과
 내수 자영업 붕괴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까지 불어 닥치면 대책이 없다는 거지.

지금.....

정부 말을 현 상황에서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크르~~~~~름..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지껄이면 하루 자고 나면 현실화 되는 모래 요정 바람돌이...

MB 노믹스..

-늪은이가-

미자. (2008.10.25)



현재 2008년도 전국 부동산 총액=3200 조 가량이 된다...
이것은 현재 한국 2008년 GDP 총액의 약 3.68배 수준으로
일본쪽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아파트 부분만을 따로 떼서 볼때
현재 가격 대비로 약 63% ...최대 68% 까지 버블로 보고 있다.

수익 환원법으로 볼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경우
68% 가량이 버블이며 지역 편차가 있으나
최소 50% 후반대까지 국내에서는 버블로 현재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G7 기준 외국에서는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1.0배~1.6배가 넘어 가지 않는다....
실제로 볼때도 또한 이것이 적정 가격인 것이 사실이다.

GDP 대비 적정 토지 가격을 1:1 매칭률로 볼때
현재 한국 부동산의 적정 가격대는 현재의 30%~35% 선이 되어 정상이라는 소리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인위적으로 방지할 경우
한국의 경제 시스템상으로 볼때 일본식 장기 불황은 솔직히 사치다..
말 그대로 남미형 경제로 추락한다고 보면 될 것이며 그걸 막으며면
부동산의 하락을 막으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총 GDP를 끌어 올려서 부동산 실물 자산 가격의 적정점을 찾아 주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7년 가량이 현재 소요 된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국민 소득 2만불은 커녕
실제로 현재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 5만 2천불 수준이라고 보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LTV 나 DTI 의 40% 규제률도 이 가드 라인 설정 당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이다....
바로 문제의 키 포인트는 한국의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전세라는 특수한 부동산 수요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드 라인 40%가 설정된 이유가 전세금 50% 대비로 책정해서
총 부동산 가격의 100% 안쪽에서 때려 막자는데
전세 자금을 말 그대로 고스란히 은행에 쳐 박아 놓는 명칭이는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전세를 주고 이어져 가는게 통상적인 상황에서
그 자금 투자액이 주식 채권으로 흘러 와서 주가 폭락으로 인한
자본 손실로 실제로 헛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설사 완전 규제를 한다 한들 은행권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이미 감내할 만한 수준을 뛰어 넘었다...
거기에 실제로 이미 자산 디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는
상황상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도 힘든 마당에 부동산 가격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규제 해제가
주택 가격 구매 가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건
솔직히 은행 애들이 보기에는 판타스틱한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이미 3% 대 후반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실제 현재 인플레이션을 대입시 이미 실제 국민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2%~ -3% 에 달하는 수준이며 문제는 2009년도인데..

● 한국경제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IMF	3.5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한국경제연구원	3.8
도이치뱅크	3.5
JP모건	3.7
UBS	2.9
무디스	2.2

이런 상황에서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상황 예상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총액	17조4000억원	33조5000억원	24조 8000억원
대출자	59만명	92만명	119만명
1인당 월 원금상환액	36만원	32만원	33만원

부동산 자산 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 도래 현황	2008년 3-4분기	2008년 4-4분기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3.4조	2.1조	4.5조	3.1조	2조	15.2조

대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5% 이상의 치명적인 타격을 맞게 된다.. 이미 내년도 부터 본격적인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시작 된다.. 그 규모만 92만명에 33조가 몰려 있다.

이럴 경우 은행 이자 부담의 증가분+ 원리금 상환액수는 1인당 평균 77만원~ 100만원에 달하게 되며 2009년+2010년 =55조 이상이 몰려 있다.

거기에 ABCP (부동산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이라는 PF 기반 기업 발행 어음의 경우 2009년부터 만기가 시작되면서 건설사 동반 수실로 이어 질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단 서브 프라임의 불은 끈 상태지만 미국 경기 침체는 미국 부동산 현지 가격의 추가 하락 압박의 경기 사이클상 최소 3~4년간 -25~ -30% 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1930년 대공황 이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런 기초 사례 분석은

1990년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주의 집값 하락 진행 추세에 근거한 모델링으로 거의 현재 기정 사실화 된 상황에서 한국의 부동산 실질 자산 디플레이션의 초기 증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두드러 지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고령 사회=2018년.....

초고령 사회=2030년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상 사실상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채 9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에는 2.7명당 나 같은 노인네 1명을 부양해서 먹여 살려 줘야 한다..

이런 과도한 부담 증가로 인한
주택 구매 여력 감소로 이어져 사회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게 된다.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면
평균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3% 대가 안 나온다.....

그 때는 사실상 성장 기조가 꺾이면서 나오는 현상이
중산층 붕괴==>>고용불안==>>제조업 해외 이전 가속화==>> 성장률 저하==>> 청년 실업 증가==>>
국민 연금과 의료 연금의 비용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추세상 손익 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 투자 보다는 해외 이전을 선호 하는 경향이 뚜렷해 진 것이 그 실증 반례이며
그로 인한 이런 전이 효과는 이미 중간 단계를 넘어서 연기금 부실이라는 실제 위협으로 다가 오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40%... 일본의 50% 대비 임금 면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 기준 10 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비용 계산시 해외 이전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곧 바로 국내 실업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한국의 올해 정부 발표는 가짜다....
이걸 흔히 통계의 함정이라고 하는 숫자 장난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실업률 수치를 발표시 통상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실업자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사실상 취업 준비생이라는 애매한 부분부터
실제 생산 현장에서 수요 창출이 없는 미생산 노동 인구분까지 산출시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보통력 불완전 활용도가 올해 9월까지 15%에 달하고
280만명이 비생산 인구로 실질적인 실업자라는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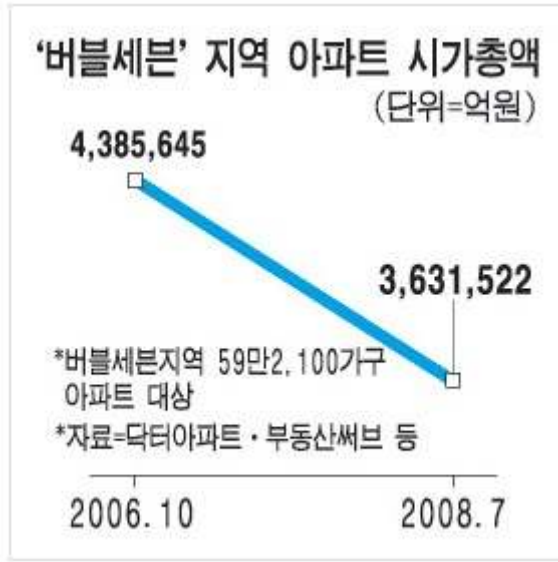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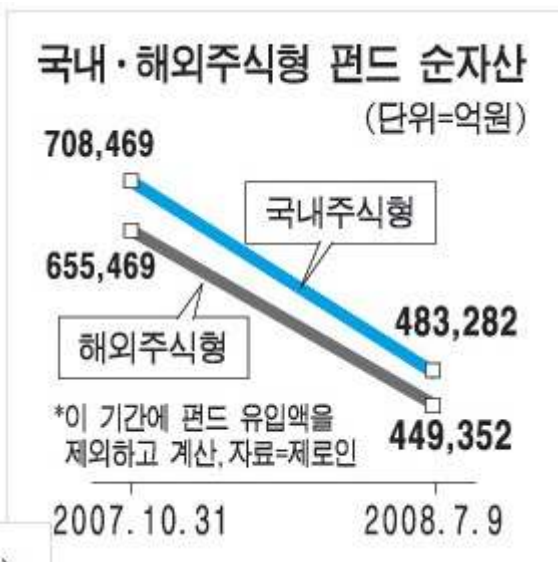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주택 구매 수요라는걸 행후 10년~15년 이상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상 건설업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구가 대략 26% 선이다..
아파트만 지으면 다 끝나는게 아니다...
샷시에 내부 인테리어 문짝 가구 업자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먹고 사는 인구가 이정도에 자영업자는
주요 OECD 의 두배 수준인 32%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현재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기에 들어서 있다..

2005년도에 총 자영업자의 5% 가 망하거나 구조 조정을 했다..
 그 때 경제 망한다고 난리를 쳤지.. 2004년부터..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상황을 뛰어 넘고 있으며
 2009년에 그 파급 효과라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로 이구 동성 외치면서 정부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책은...없다.
 묵묵 무답....일부러 썩까지는 건지 원지.. 별 희안한 걸 가지고 소상공인 제도랍시고 가져 나오더군.
 이런 추세 속에서 월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 PTI는 올라 가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만 24% ...전국 평균은 27% 수준이며
 이것은 2002년 대비 수도권 PTI= 13%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상승률이다.

이런 막대한 이자 부담 속에서
 왜 현재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수치는
 일본 헤이세이 불황 전초의 부동산 버블 폭락 바로 직전의
 주택 상환금 비율=26%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고 다 쉬쉬 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자산 디플레이가 일어 나니까 매매차익은 없어지고 대출 이자 부담만 증가 한다..
 이런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 부진으로 전이 되고
 이것은 현재 총 인구의 25%를 먹여 살리는 고용 인력의 감소라는 걸로 나타난다...
 그 당시 일본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7% 대였다..

97년 당시의 IMF 시즌 1 이 기업 부실 이었다면
 이번의 2008년도에 분체가 되는 것은 가계 부실 문제가 핵심이다..
 이것은 워낙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문제처럼 일괄적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 한 문제인데
 여기서 대정부 리스크 관리 실패에 따른 자산 디플레이션의 가속화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걸 마이너스 부 효과라거나 역(逆) 부의 효과(wealth effect) 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아줌마들이 미래의 이자 가계 부담이나 고유가, 인플레이션 .
 학원비 상승에 실업을 증가로 인한 미래 수요를 예상하고
 자산 하락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소비를 왕창 줄이는 효과가 발생 함으로써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이라는 건 완전히 상쇄가 되면서 세금 부담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지출

(2000년가격 기준,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연간	2007p				2008p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GDP)	5.0	1.0(4.0)	1.7(4.9)	1.5(5.1)	1.6(5.7)	0.8(5.8)	0.8(4.8)	0.6(3.9)
비농림어업	5.1	1.0	1.8	1.5	1.7	0.8	0.8	0.6(3.9)
농림어업	1.1	0.8	-1.0	0.9	-1.1	0.5	2.0	-1.3(0.4)
제조업	6.5	0.4	3.1	2.5	2.9	0.7	2.2	0.4(6.4)
건설업	1.8	0.2	-0.8	0.6	1.0	-0.5	-2.4	1.5(-0.3)
서비스업 ¹⁾	4.8	1.1	1.4	1.5	0.8	0.5	0.5	0.2(2.1)
민간소비	4.5	1.6	0.9	1.3	0.8	0.4	-0.2	0.1(1.1)
설비투자	7.6	4.5	1.6	-1.8	2.1	-0.4	0.9	2.3(4.9)
건설투자	1.2	-0.3	-1.2	0.2	1.2	-1.4	-1.0	0.3(-0.9)
재화수출	12.0	3.3	4.3	1.8	7.4	-1.8	4.3	-1.8(8.1)
재화수입	10.9	4.0	5.9	-2.4	9.9	-1.9	4.2	-1.7(10.4)
국내총소득(GDI)	3.9	-0.3	1.4	1.3	0.3	-2.1	1.4	-3.0(-3.2)

주 :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2)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



이미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110% 가 넘어선 상황이며 매년 평균 5% 가 증가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주시해야 한다..

일본의 헤이세이 부동산 폭락 시 주택 보급률이 140% 였다... 이미 과 포화 상태에서 미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지가는 헤이세이 불황 92년 초기의 60% 이상이 폭락한 상태에서 주택 11%가 공실로 비어 있고 피를 본 후에야 일본은 2000년대 이후에 경제 부흥기로 재점화를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나온 분석은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의 40% 가량이 더 폭락 해야 한다고 시시 때때로 티비에서 더들어 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2012년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140%에 급접할 때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인당 국민 소득이 6만 달러가 넘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이 6만 달러에 맞추려면 잠도 자지 말아야 한다.. 미치도록 일해야 이 140 % 수요에 맞춰 줄수 있다.. 그것도 행후 고령화 사회 진입 시기로 접어 들어서 이전 실질 성장률이 3% 아래로 고착화 되는 시기인 8~9년 전까지 말이다..

지금 추진 신도시만 판교.김포.파주.광교.양주. 송도. 송파. 아산. 검단. 동탄... 이전 기억도 잘 안난다.. 한 숨 돌리고 할 정도로 수요는 썩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이 GDP 15% 내외지만
전체 국민들 1/4 를 먹여 살리고 있다.....
수출 백날 해 봐야 솔직히 전 국민들에게 돌아 가는
실질적인 직 간접적인 혜택이라는 것은 자영업자부터 다 포함하면 솔직히 50% ~60%는 남의 얘기다..

이런 사회 불안의 증가로 인해서
현재 개인 파산과 자살율은 일본 헤이세이 불황기의 2 배 수준이고
이혼율은 작년인가 저저년도에는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에서는 한국 농지 가운데 50% 정도가 남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한 규제 해제로 인해서 지금 터진 문제가 쌀 직불금 문제다...
지금 현재 식량 자급률 23% 수준도
동일 유럽 국가 비교로 프랑스 식량 자급률 300% 나
주요 공업국이라는 독일만 봐도 160% 가 넘는다...

한 마디로 제 아무리 주요 공업국에 산업 구조 특성 때문이라지만
현재 23%는 독일 기준 1/8 수준에 프랑스의 1/15 배 수준으로
앞으로 곡물가격 급등락에 따른 국내 수급 문제도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현재 농촌에서는 60대는 청년이라고 한단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산업 시설 설비 투자 지수는
2007년 +10.1% 대에서 2008년도 현재에는 -4% 이하로 떨어지고
제조업 채산성 BSI=68로 98년도 IMF 당시 53 수치 근접 수준이다.
거기에 향후 10월 경상 수지 적자에 따른 추가 환율 폭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부 재정 적자 문제다..
장기적인 정부 재정 적자는 결국 세금 인상으로 직결이 되면서
세금 인상에 따른 부동산 추가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된다..

설사 지금 5년간 누르고 세금 경기 부양을 하고 쳐도
다음 차기 정권에 막대한 재정 부담 압박으로 빚더미를 넘겨 주는 꼴이 될 판국이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세금 경기 부양으로는
2013년 까지 -3조의 세수 감소가 나온다.
지금 현재 총 GDP 대비 35% ~37% 가 정부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2010년 이후의 세금 경기 부양으로 받을 정부 재정 압박상
그 후에 받게 될 세금 인상 부담액의 증가는 세수 감소분까지 겹치면서
세금 폭탄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초거시적인 상황으로 보면 노인 인구 증가==>>재정 지출 압박==>>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추가 압박==>> 복지 수준 하락==>>재정 지출 증가..

이미 중간 이후까지 진행형인 상황이지만 복지 수준 하락은 맞는데
재정 지출 증가는 현재까지는 강제로 틀어 막고 있다 ..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하위층이 직격탄을 무방비로 맞고 있다.

어떤 분은 1997년 사례를 들면서 그 때 일시적인 집값 폭락 이후에
부동산이 재폭등을 했다면서 이번에도 마찬 가지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있다..
그 때와 지금의 다른점은 일반 가게 대출이다... 설사 지금을 넘긴다 치더라도
향후 4년 이후에 주택 구매력이라는게 회복 될지는 미지수다...
월래 거래라는 것은 구매 대상자의 구매력이 갖춰 졌을때
실질적인 가격대 형성 유지라는 것이 가능한 데 과연 떨어져서 회복세가 된다
한들 그걸 구매해 줄 여력이 없으면
97년 이후 와 같은 2002년 이후와 같은 재상승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IMF 당시에는 이번처럼 가계 대출이 많지도 않았고
그 때문에 국가 파산 위기에도 일시적이지만 집값이 30% 정도 밖에 안 떨어진 이유가
잠재 구매 여력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1990년 헤이세이 불황 당시 15년에 걸쳐서
-70% 가까이 떨어졌던 사례를 보면
향후 2년 내외 단기단계 -15% 하락....
5년~7년 년내에 추가 하락은 이미 기정 사실로 보고
5년 년내 -27~ -35% 가격 하락을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더구나 97년 이후 2002년 부동산 가격 재폭등 시기에는
세계적인 미국 경제 호황에 IT 버블기로
신흥 성장 동력 산업의 대두기 였다는 변수를 잊으면 안 된다..
지금은 그와는 180도 다른 국내외 변수상.....이런 기대 조차 무리....

물론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저가 평가 되었다고 보거나 아니면 거주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향후 10년간.....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자 부담과 금융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보유 하는 걸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분이 위에 그래프 보면서 그러신다..
왜 이렇게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락 하느냐.... 주가 바닥이 어디냐..
직접 이걸 이 메일로 보냈더라고....
외국 애들은 모건 스탠리고
어디고 한국 경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끊임 없이 계속 팔아 치우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환율 시장 불안+ 금융 시장 불안=====>>>
부동산+ 금리로의 전이 확산이라는 싸이클 패턴을 주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현재 문제 있는 회사가
대략 27개 사 정도가 된다..
거기에 한국 국내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외국계 자금의 국내 추가 유입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구장창 외국 애들이 주식을 팔아 치우는 이유가 그것이다..
 왜냐면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주가 낙폭 과대로 아예 빠져 나올 시간도 없이
 막대한 추가 손실은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국내 변수가 해소 되지 않는 한은 주가 상승은 무리라는 얘기다..
 바닥?.....아직 내부 악재가 안 터졌는데 뭘 바닥??????

오늘 아까 고구마 팔러 나갔는데 왜 아줌마가 오더라고..
 난 욕쟁이 할아버지라고 아파트 아줌마들이 웃고 떠들거든..
 그래서 오더니 " 할아버지... 간만에 나오셨네요?"...
 아파트 부녀회에서 아파트 집값을 못 내리게 막는다는거야..

그러면서 내려 팔고 싶은데 어쩌냐고..쌩까고
 그냥 지금이라도 급매물이라도 정리 할려고 하는데..어찌고 하길래..
 쌩까고 정리 하라고 했지... 하여간 이 놈의 여편네들은 부녀회라는게 악질이어...
 가격 내려서 팔려고 해도 못 팔게 막는다니까.
 지금 그런 동네가 한 둘이 아닌 상황이지...
 그런다고.....대세를 막을 수 있나??..
 주식은 부동산 악재가 해소 될 때 그 때가 바닥이라고 보고 들어 가는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석이야..

지금은.....
 돈 한 20억 주식으로 굴릴 자신 있으면
 저가 매수 하는거고..
 그게 아닌 폰 돈 몇 천 가지고 지를려면 사실 지금 지르는 건 미친 거지..

S&P의 국내 은행 신용등급 조정결과		
기관명	조정전	조정후
국민은행	A Stable	A Watch Neg
우리은행	A- Stable	A- Watch Neg
신한은행	A- Stable	A- Watch Neg
하나은행	A- Stable	A- Watch Neg
하나펀딩	BBB Stable	BBB Watch Neg
외환은행	BBB+ Stable	BBB+ Watch Neg
우리금융	BBB+ Stable	BBB+ Watch Neg
신한카드	BBB+ Stable	BBB+ Watch Neg

시실 지금 제 1 금융권도 문제가 있는 곳이 좀 있지...
 2군데..... 이젠 신경 쓸게 한 두개가 아냐.
 진짜 못 살겠다.
 방금 장사 끝내고 맥주 한 잔 마시다가 씨 봤어...
 오늘 아줌씨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이 자꾸 찹쩍 대가지고 진짜 늙어서 못 살겠다..
 사라는 고구마는 안 사고 자꾸 와서 이딴거나 물어 보니 어쩌라고...
 이젠 다른 단지로 옮겨야 할려나 봐... 괜히 씨부려서. 크르~~~~~릉.... -늙은이가-

이젠 쇠주 마시러 가 봐야겠다...

주말에는 동네 늙은이들끼리 술 파티 하는 날이거든..... 며칠 너무 쉬었어..

이젠 몸 풀러 가야지.....크르~~릉....

이젠 늙은이 꺼진다..

정말 고구마 파는 노인네라니깐.. (2008.10.25)

지금 집에 노인네들 와서 술 사가지고 부침개 부치고 있는데..

진짜 고구마 파는 노인네라니깐 그러네..

미자는 오늘 오후에 고구마 사러 온 색시 이름이야...

"근데 색시 올해 몇 살이야?...".. 하니깐 " 39이여"..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름 물어 보길래 미자래... 최미자.. .. 색시..실명 거론해서 미안혀..

그리고 지금 장사하는 나와 바리가 동네에 소문 나서

이젠 반 카운셀러 받으러 오는 여편네들이라서

고구마 팔면서 재무 상담 겸업 하느라 장사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포트 폴리오 짜달라고 뭐 들고 오는데 고구마 파는데

길에서 그 짓거리 하기 좀 그러잖아.. 그런데 어떤 여편네가 의자 하나 주워다가

공원 뒤흘에 놔 뒀드라고..

그래서 오늘 장사 한 3일 술 마시다가 안 나갔더니

여편네들이 와서 추운데 고구마 까 먹으면서 그러잖어..

그러니깐 사람들이 이거 뭐냐 하면서 쳐다 보고 ..늙은이 쪽팔리게.

아깐 오전 10시 쯤 되서 여편네 하나 나오더니 영감 나타났다고 그래서 계속 오잖아..

그 중에 1/3은 고구마는 안 사고 주스병 들고와서 마시라는거야.. 소주나 가져 오지.

마지막 손님이 미자야..

이젠 옆에 2단지로 단지 옮길라고..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는거야..

요즘에 입 한 번 잘못 놀리면.....진짜 안 된다..

취 죽은 듯이....취도새도 모르게..... 원 말인지 알것제..

이젠 빨리 가서 부침개 마저 부쳐야겠어... 노인네들이 빨리 부치라고 극성이라서...

술 한 잔 마시다가 필 오면 하나 더 쓸께..

이젠 빨대 꽂으러 가야겠다..

미자..... 근데 미자가 잘 살아야 할텐데..곱상한 색시가

이 집구석도 남편이 주시기를 좀 잘못 꼬질러서 문제가 터진 집구석이거든...

그래서 몇 일 잠 못 잤나 봐..

하여간 숨긴 계좌나 신용 쓴거 있나 없나 잘 뒤져 보고..

숨기는 집들이 요즘 하도 많아서 말야..

정 거시기 하면 그냥 기계가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나 시 야.....어때?....간단 하잖아..

너무 시간을 끌었다. (2008.10.26)

오늘 외국에 갔다 오더니 이제서야 11월 다 돼서

은행채부터 예금자 보호 상한 조정 같은거 손대면서 현실 인식이라는걸 하고 있다.

이런 경제 불황 초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적 스피드다.

이런 조치가 이미 9월 초나 중순부터 마켓에서 주문을 한 내용들로

아무리 늦어도 9월 초나 8월 말에 복안이나 플랜 설정이 다 나왔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회의 하고 있다.

거의 2 달 가까이 지연 됨으로써 그 시간적 비용과 대가라는걸 치를 시간이다.

핵심은 시간을 너무 끌었어.....이게 키 포인트야...

이미 준 IMF 나 다름 없는 상황 속에서

실물 경제 메인 스트리트로 파급 여력이 퍼져 나가기 시작한지 지금에 와서야 저래 버리니.

오늘 백화점 가서 지금 실물 상황이 어떤지 둘러 보고 다녔지..

노인네가 어슬렁 거리고 다니니까 별로 눈에 안 뜨인다는 게 장점이거든..

창고에 넣어 놓은 꼬깃한 걸 걸어 놓고 파격 세일 한다고 꿀깎을 떨어도..

사람들이 코드 한번 입어 보고는 선뜻 사려고를 하지 않더군.. 그냥 다 가 버리는게..

10만원 이하로 다 떨어지고 싸게 파는게 그 정도야..

참.. 그런거 보고..지하 매장에 가니까 식품 매장만 디글디글한게..

그것도 예전 절반 이하 수준에 몇 번을 들었다 놔다 하는 아줌마들..

아줌마들을 잘 관찰하면 지금 경기가 보이거든.

시간이 너무 늦었어.

소수의 자만이 다수를 파멸로 몰고 가는구나...

소수의 프라이드를 지켜 주기 위해 다수가 피해를 봐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괴담 어찌고 떠드는 정치색에 물든 애들만 설치고 다니니..

예전 1930년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오기 전에

딱 지금 이나라에서 처럼 정치 선동에 열을 올리는 놈들만 득실 거렸지.

존재 여부도 불분명한 가공의 적 좌빨 타령에.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근거 없는 낙관이 전체를 지옥으로 몰아 넣었다.

추가: 자꾸 지금 대안이 없냐고 하는데 세상에는

반드시 결과에 따른 책임과 대가의 법칙이렇게 존재 한다..

시간 지연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피고름을 한 번 짜 내야 상처가 아무는 것과 경제는 매 한가지다.

반드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가라는 걸..

사회적 비용이라는걸 치뤄야 바닥을 다시고 다시 시작을 할 기반이라는걸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일단.....태풍을 한 번 맞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이런 꼴 안 당할려고 9월 전부터 그렇게 귀에 못 대가리 박히게 얘기 한거 아냐!!!!!!!!!!!!

지금 장난해?

내가 얘기 했지... 세상에는 절대 공짜라는게 없다고..

특히 자본 논리는 더더욱 그렇고 말이지.

각자 준비 하고 마당에 철심 박아.. 태풍에 안 휩쓸리려면 철심 박고 준비 해야지.

자꾸 뭔가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08.10.26)

이 나라 민족성이 워래 그렇게 끈짜를 좋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밀지고 파는건 배알이 꼬여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1월 바로 전인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라는건..

일단 대가라는걸 치룬 다음에 태풍이 휩쓸고 지나 간 다음에서야 대안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럼.....암 말기 환자 한테..... 장기 이식을 해야지.....

암 치료 하자고 약물 투여만 한다고 암이 완치가 되냐?.

한 번 쓸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는게 대안이야..

그럼 그러지.. 왜 한 번 쓸어 버리자는 비관적인 소리 하냐고..

왜냐고?.....이게 바로 양비론에 찌들대로 찌들어서

조중동에 세뇌당하기를 30년 역사의 퇴물이라는거야.

시간 지연에 대한 경제적 사회 기회 비용이라는걸

지금 2달이나 지난서 다 놓쳐 버렸으니 이젠 결과만 도출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댓가라는걸 치뤄야지 그 다음에 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거지.....

지금 장난해?.....

이래서 일부 또라이 같은 애들 말 장난 해 주기 짜증난다는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지 멋대로 놀아 나다가

이젠 카드 청구서 들이 밀고 나면 그제서야 이거 어찌냐고 대안 내 놓으라고..

그게 강만수와 이명박과 일부 한나라당 또라이 애들과

정치 선동에 놀아난 애들과 날 뛰는 늑은이들과 지역색에 빠져서

정치와 경제를 혼동하고 떠들어 대다가 소수가 다수를 몰락 시키는

피의 결과를 부른 지금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안 찾자는 소리 하지 말고 경험적 학습 효과로 이런걸 뼈에 새겨라.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소수의 오만이 다수의 파멸을 부른 지금 이 현실을..

사람이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 딱게 중요한게 아니다..

경험적 학습 효과라는게 없는 인간은 처절하게 결과에 따른 책임이라는걸

뼈에 조각칼로 피로 아로 세겨야 그제서야 각성이라는걸 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시스템의 틀을 깨고 나와서 각성이라는걸

하루 발리 하는게 살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반드시 치를 필요가 없는 고통까지 살면서 다 감내 하고

끌어 안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 가야 한다..

그런걸 인식 하든 못하든 말이다. -늑은이가-

지금 말 해 주는데 절대로 세상에는 끈짜란 단 돈 10원도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절대로 마이너스 인생이라는걸 살지 말기를 바란다.

빛은 빛이지 이런 빛까지 재산이 될 수는 없다는 건 피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야

인간이라는 동물이 깨닫는 5천억 역사의 진리다.

우리가 특권 신분의 납세 부담까지 져야 할 이유따위란 나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당한 권리를 당연하다고 믿는 나라에게 미래란 없으니까.

삼신탈매. (2008.10.27)



블룸버그 실시간 뉴스 : <mms://broadcast.donga.com/bloomberg>

(이젠 국내 언론은 못 믿겠다.. 100% 리얼 타임 정보로 시장에 대응한다...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연기금을 - 6200억 이상 주식 시장에 때려 박아 주가를 왜곡 시키면서 주가 방어라는 걸 했다.

지금 이 주가는 정상 주가가 아니다..

하지만 이걸 꼭 부정적으로 볼 상황이 아닌 것이

어쩌면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마지막 청산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공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다만 이런식으로 연기금 부실화가 향후 몇 년 안에 수면 위로 부각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환율은 1485원 밑에서 무조건 때려 막아야 한다..

그 이유는 1485원이 뚫리면 단기간에 1525원으로 폭등을 해 버리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 통제력 상실을 방어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솔직히 11월 중반 이후가 불투명 한 것이

현재 기준 금리 -0.75 인하 변수는

국내 엔캐리 자금의 -17 % 가량의 연내 청산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연말 헤지 펀드 11월 청산 회계 시점에 맞춰서

이런 과도한 금리 인하 액션으로 인해서

환율 폭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 오늘 확실한 시그널로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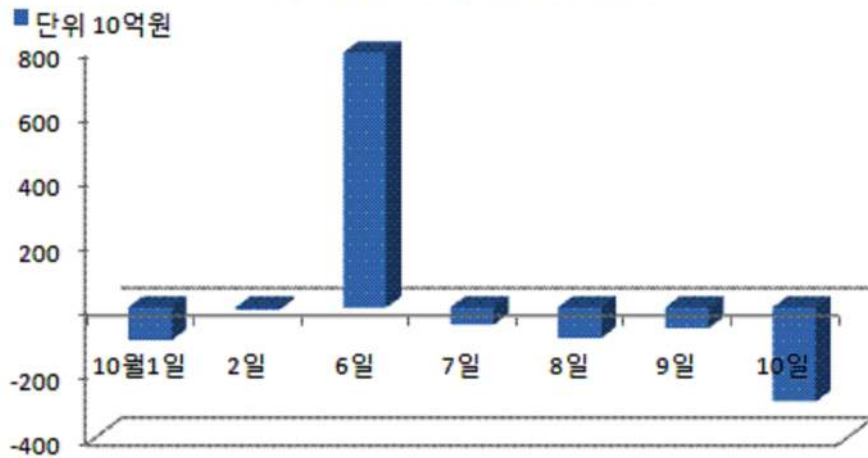
외국인 월별 채권 순매수 추이 (단위:억원)



현재 2/4 분기 이후 매도세로 돌아선

매매 포지션에서 9월 롤 오버 물량도 1개월~3개월 물량이 85%가 넘어 간다..

10월 외국인채권 순매매 동향



지금 12월도 위험한 이 시기에 국제 공조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0.5도 아니고 0.75로 버닝키 흥내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11월 내에 대대적인 외국계 자금 철수 압력은 더욱더 가중되며 문제는 12월에 터질 공상이 다분해 진다.

대통령의 최면을 살려 주기 위한 과도한 연기금 투입으로 인한 주가 방어로 인해서 820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재 반등을 할 과도기적인 현 시점에서 자꾸 정부 차원에서 시장 왜곡이라는걸 함으로써 지금은 1차 저점 820 밑에서 바닥권 형성도 장담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주가가 이런 비정상적인 수준의 폭락을 한 이유는 외국계 자금 이탈과 동시에 정부의 시장 왜곡이 절대 변수다.

이런식으로 시장을 왜곡 시킨다면 현재 박스권 바닥 형성 주가 시점을 800선 아래에서 재설정을 해야 한다.....

더구나 연기금이라니..

연기금이 주가 방어도 하고 은행채도 매입하고 연기금은 또 올려서 지금 한다고?.

원 수로... 헤지 펀드로 LTCM 예전 멤버라도 다시 불러 올려고?.....

진짜 이해 하기 힘든 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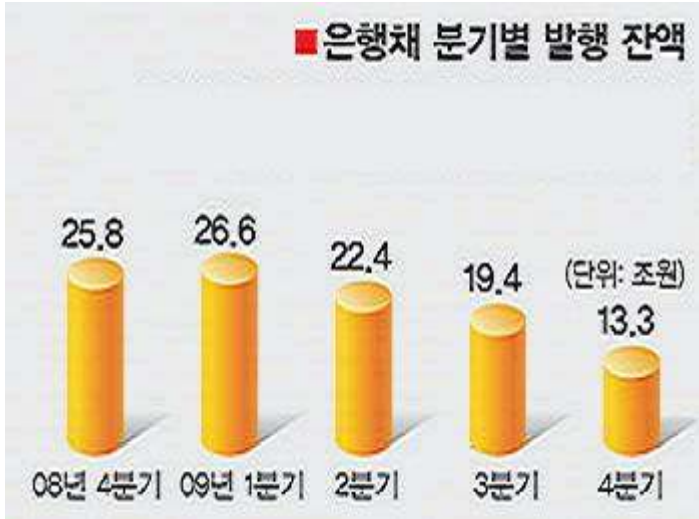
지금 은행 채 매입이나 중소기업 외환 결제는

이제라도 잘한 결정이지만 과도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외국 자본 추가 이탈과 그로 인한 환율 재폭등 수요...

거기에 지금 대중국 무역 비중 축소로

무역 수지 적자폭이 4/4 분기 내에 확대가 전망 되는 이 시점에서 자살 행위라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은행채 문제는 올해 보다 내년이 더 문제다...

보면 알겠지만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겨우 5조~10조 분할 매입 해 준다고 해결될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에도 계속 이런식으로 한국 은행에서 은행채를 매입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은 이 상황에서 지금 대출 금리를 전격 인상 시킨 원인은

지금 현재 예대 마진 130% 때문에

비율 조정 차원에서 일단 예금 금리는 인하 시키더라도

대출 금리는 CD 금리가 설사 내린다 하더라도 섣불리 내릴 수 없는 것이 국내 은행권의 현재 상황이다.

은행 외화 부채 (단위:십억달러)



은행별 외화 부채 및 단기 외화 부채 비중 (단위:%)



현재 원화 유동성 문제도 그렇지만

외화 유동성 문제 부분에서는

훨씬 더 심각성을 더 해 가는 이 상황에서 크레딧 라인이 전면 봉쇄 되었다.

결국 이번에는 대기업이 끄떡 없다고 만사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내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문제와 중소기업 - 자영업 붕괴에 따른 문제가 핵심인데도

자꾸 과거를 들먹 거리면서 안심 시키기에만 급급 하고 사실을 숨기려고만 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

■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단위 : 연%)

	주택담보대출 금리	4주간 상승폭 (%포인트)
국민은행	6.92~8.42	0.36
우리은행	7.06~8.36	0.36
신한은행	6.96~8.26	0.36
하나은행	7.28~8.58	0.37
기업은행	7.11~8.41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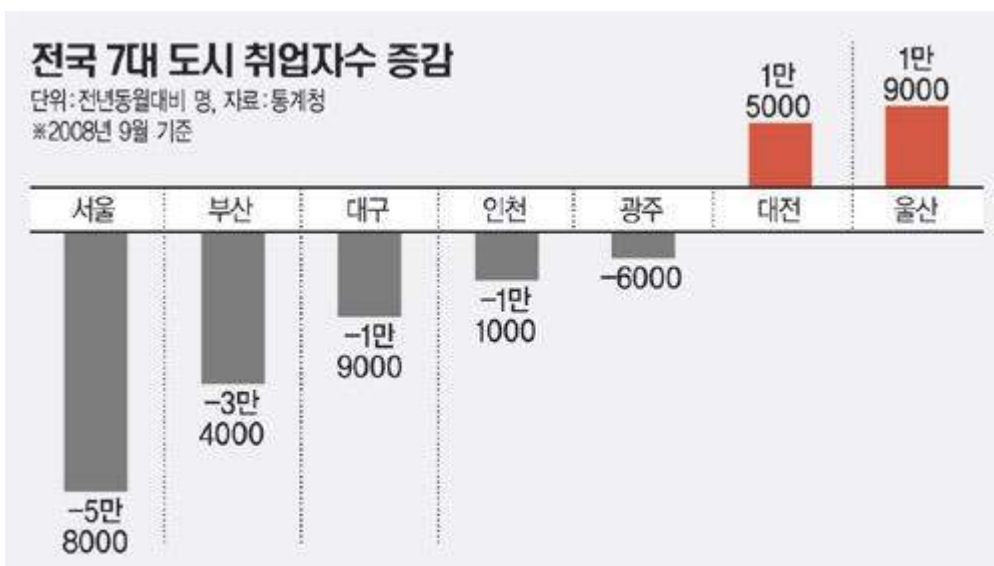
<자료 : 각은행>

■ 시중은행 예금상품 금리 (단위 : 연%)

은행	상품명	금리
SC제일은행	1년 정기예금	7.3
기업은행	e-끌림통장	7.3
국민은행	허브정기예금	7.3
한국씨티은행	프리스타일 정기예금	7.1
우리은행	우리로모아 정기예금	7.05
외환은행	에스큰기쁨예금	7.0

<자료 : 각은행>

전날 기준 금리 인하 전에 시중 은행권의 금리는 전격 인상 되었다...
그 이유는 지금 은행권 상황을 반증한다.



주요 광역권별 실업률 증가 수치는
4/4 분기 이후 추가 예산 4조원 책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있는 일자리도 중소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와 은행권의
기업 신규 대출 중단으로 인해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주요기관 2009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기관	2009년 성장률 전망치
IMF	4.3~3.5%
골드먼삭스	4.6~3.9%
한국은행	4%
LG경제연구원	3.60%
한국금융연구원	4%
한국경제연구원	3.5~3.9%
기획재정부	4.8~5.2%

지금 이 수치도 상당 부분 조정 되었다..

해외에서는 4% 대에서 이제는 2.7%~ 3.2% 를 거의 기정 사실로 보고 있는 상황.

결론:

은행채 매입으로 회사채 시장과 CD 금리 하락을 유도 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금리가 -0.75 라면

엔캐리 청산 압박은 -20% 가까이 연내 청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현재 엔 캐리 대출 피라미드 상 1차로

개인 대출자가 이로 인한 피폭을 받을 공산이 크며

이를 반증하듯 오늘 엔/달러=93엔... 원/엔= 1500원이 넘어 가는 시점에서

심각한 금융 비용 부담 상승 압박을 받게 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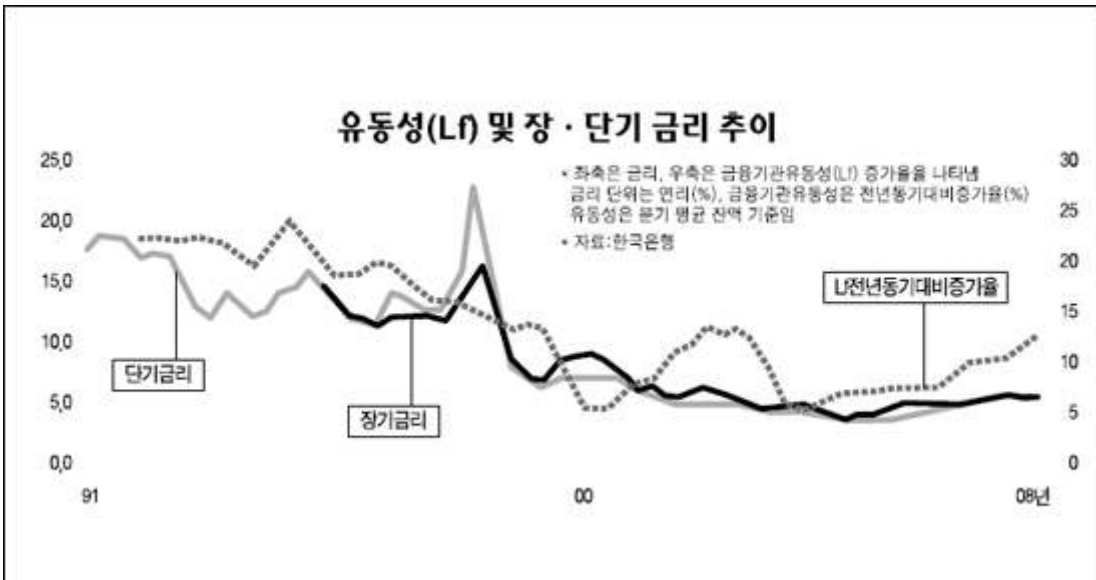
환율이 1485원이 넘어 가면

최소 3일~ 5일 안에 1525원 이상 급상승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1400선에서 고착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450 밑으로 무조건 틀어 막지 않는 한 내년 09년 1/4 분기 물가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다..

현재의 물가 상승은 일반적인 통화량 증가 요인 때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금융권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의 경우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폭등 위험성은 15% 이상 가중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금을 통해서든 정부의 직접 지원이든

집적적인 기업 지원 방식으로 원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측면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물가 영향력을 건드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결국 현재 환율 1400을 꺾기 위해서는 외부 자금이 결국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인데.....

문제는 끌어 올 만한 데가 지금 당장 없다는 것.....

그럼 결국 내년에 역대 AMF 아니면 영미계

통화 스왑..... 그게 아니면 자체 조달인데..

그걸 위해서는 최소 현재 6개월 정도는 자력으로 버텨야 한다.

결국 일정 부분 물가 폭등에 따른 피해는 또 우리가 감당해야겠지...

MB 50 같은 박정희식 물가 관리는 이제 씨알이 안 먹힌다니까.

국제 유가가 내려 가자 오펙에서 역시

결국 최소 150만 배럴~200만 배럴까지 감산 조치에 들어 갔다..

아마 유가 100달러가 깨진 현재 상황에서

내년 1월 경에 추가 감산 조치에 들어 갈 경우 유가 상승분은

현재 달러 인덱스상 + 17.5 달러 수준이다.....

이런 복합 요소들을 모조리 다 감안해서 물가 핸들링을 하면서

지금 살길을 찾는 방법 밖에는 발리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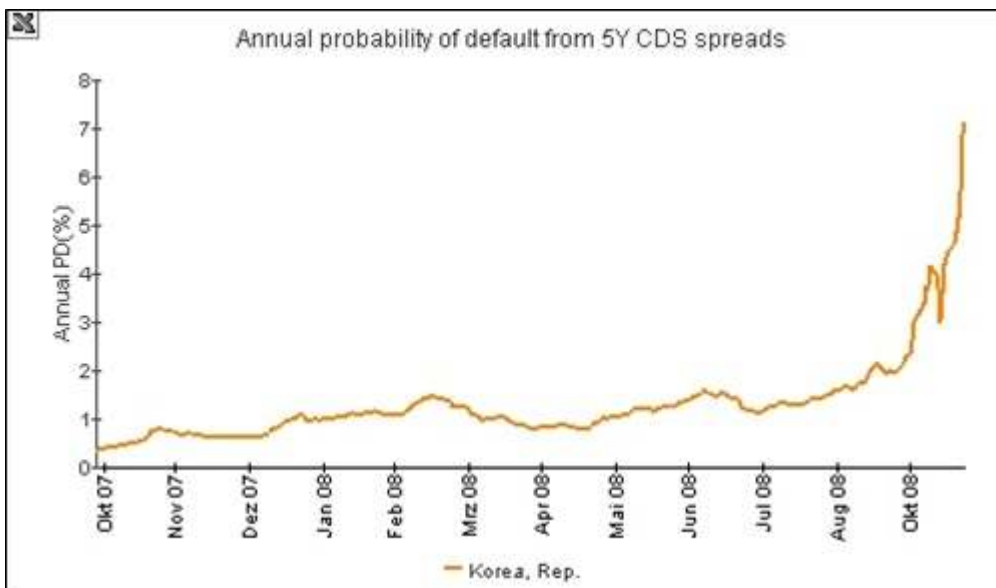
	제조업	섬유	화학	철강	일반기계	전자부품	자동차
2008.1	13.43	-11.54	3.52	7.43	5.59	32.81	19.8
2008.2	8.97	-7.58	3.59	10.68	4.03	35.48	2.36
2008.3	13.77	-12.78	10.03	10.14	5.8	43.55	9.34
2008.4	12.03	-3.58	0.34	17.27	11.41	37.65	3.08
2008.5	6.85	-11.29	-5.59	4.61	-3.23	34.01	-0.61
2008.6	6.68	-11.64	3.4	0.52	1.11	16.68	13.24
2008.7	4.48	-9.71	-3.67	13.33	9.65	12.27	-12.13
2008.8	0.38	-11.09	-6.69	9.74	-3.08	5.81	-10.16

<자료:KIET>

더구나 현재 GM 의 연내 파산 신청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고용 부분인 건설 + 자동차 에 대한 피폭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그 밑에 하청 기업들이다..

비용 감소분의 하청 기업 단가 인하 압력으로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연내 도산 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나면서 고용 불안의 시한 폭탄으로 작용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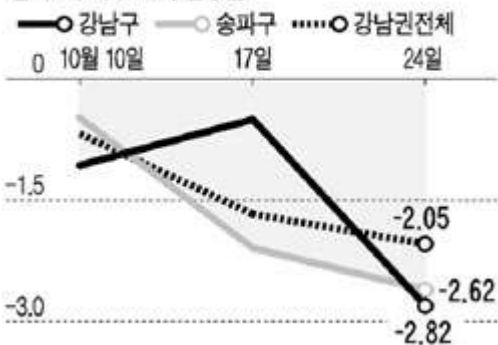
현재 상황상 일단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수며 그 중에서도 환율이 11월 중반 이내에 1400 이내로 떨어 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축소 되야 한다.. 원래 12월달에 1075~1120 원 내에서 안정 추세를 보여야 할 환율이 현재는 1400원 고착화를 총해서 이미 중소 IT 제조업체의 70%는 직접 부도 가시권이다..

중반 이후를 현재 그대로 넘길지 환율 통제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다분한 상황에서 지금도 환율 통제력이라는 부분을 외국애들한테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12월 단기 채권의 롤 오버 문제로 이걸 직결 되는 핵심 사항으로
 12월 롤 오버 물량의 70% 이상 이월 시키려면 환율이
 12월 말 내에는 1250원 아래에서 박스권 형성이 되어 가능하지 이 상태로는 장담이 어렵다.
 하루 살이야?....

지금 전세 판도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이걸 전쟁이야.... 그럼 대중 전쟁 돌아 가는 판세라는 흐름은 파악 하고 있어야
 개인별 비상 플랜이라는게 나오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단위:%, 전주 대비 변동률



자료:중앙일보조인스랜드·한국부동산정보협회

자산가격 하락 외국사례

(단위=%)

구분 국가	버블 국면		거품붕괴 국면	
	기간	누적 상승률	기간	누적 상승률
일본	1979~1990	358.0	1991~2002	-364.1
영국	1983~1989	152.1	1990~1994	-86.1
스웨덴	1986~1989	88.1	1990~1993	-108.0
핀란드	1986~1989	92.2	1990~1993	-135.4

※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5)

현재 자산 디플레이션의 해외 사례와 더불어 볼 때
 외국 애들이 다시 국내 주식 시장에 돌아 오는 타이밍은
 국내 부동산 자산 가격의 확실한 버블 정곡점이 꺾였다는 시그널이 오기 전에는
 국내로 U턴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국내에서 자산 디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라는걸 보면 외국계 자금 철수와 복귀 타이밍을 통한
 주가 반등과 시장 변동은 일본의 사례를 기초로 주요국 사례를 샘플링 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예외라고?.....

일본 애들도 그렇게 생각 했고...
 영국 애들..스페인..미국 애들도 그렇게 생각 했지....

그걸 바로 착시 효과라는 거야...그래서 아직 못 느끼는것 뿐이지..... 일부 애들 빼고....늑은이가-

전쟁터에서 천민이 살아 남으려면

정확한 전쟁 상황인 판세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중요 하다....

장사 끝나고 지금 와서 쓰는데 이제 그만 써야겠어..손가락이 땡기네..

소주 한잔 마시러 이만 가야겠다..

오늘은 미자가 안 와서 아쉬웠어...미자.....그 처자 이혼 하면 안 될텐데.. 남편 놈 때문에...

여기가 뉴욕 짝퉁 시장이야...

실제로 월 스트리트 금융 귀족 놈들 아니면 사는게 다 이래..



신이시여.....우리를 보호 하소서..... 아 멘.....

오늘 대통령 한 사람의 체면을 살려 주자고

그 막대한 연기금을 쳐 부어 던 건 정말 납세자로써 용납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기사...애시당초 천민들로 생각을 하니 그런게 눈에 보이겠냐마는..

소주 한잔 마시고 리어커나 수세미로 청소 하러 가야겠다.. 빨리 뉘.져야 하는데...

그리고 어제 KBS 하는거 봤는데 정부 애들 거짓말 진짜 잘하더군... 미친 놈들..

아마 전세를 읽고 있는 놈들은 반은 썩 구라라는걸

대변에 알만한 거짓말 하면서 흑세우민 하는걸 보고 진짜 참 말세는 말세더라.

그래서 속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게 중요 하다는거야..
그 사기꾼 같은 놈들.. 보다 꺼 버렸어..짜증나서..

이 정부가 살아 남는 마지막 방법은
경제 분야에서는 대통령을 배제 하고 한국 은행장 임기 끝나면
독립 기구로 영향력 안 받는 인간 세우고
재경부 장관을 국내 정운찬이나 다른 대학 교수애 불러다 앉힌 다음에
그나마 한나라당이 어차피 여당이라면 이한구를 임시 위원장으로
독립 비상 TF 팀으로 이헌재나 정운찬 같은 IMF 이후 경제 핸들링한 실전 인물들 데려다가
최소 6개월~ 1년 정도로 위기 극복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다 망한다.....

왜 이한구나고?.....

그나마 이한구가 한나라당에서는 할 말 하는 사람이거든...

딴 놈들은 죄다 경제는 다 무식이고.....

그러니 구색 맞추려면 위원장 자리라도 당 내 인물 내세우고 재판 짜려면 방법이 없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입만 열면 열수록 상황이 더더욱 악화만 되는 판국이다..

도저히.....방법이 없어....

행정부 내에서 경제 분야 만큼은 대통령을 배제 시키고 손을 봐야 해결책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나마 희망이라는걸 볼려면 이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라 이거야.

다 같이 살자며.. 아님.... 그 잘난 프라이드 지켜 주자고 우리 다 망해야겠니???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2008.10.27)

지금 주가야 정부 개입으로 시장 왜곡이 되서 다시 재 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대통령을 끌어 내리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경제 말아 먹기 직전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비상 TF 만들어서 대통령 개입 차단 하고 단독 기구로 경제 회생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입만 열었다 하면 어디에 4조를 지원하네..위에

또 몇 조를 지원하네 하는 말 장난만 하면서 계속 대 정부 신뢰를 떨어 뜨리는게 눈에 안 보이냐?.

저게 가능 하려면 예산 조율이라는게 있어야 신빙성이 있는건데

원 돈으로 여기 저기에 몇조씩 팡팡 지원 하냐고.

지금 감세로 경기 부양 하자는

웃기는 나라에서 복지 예산이 벌써 3~40%씩 돈 없다고 팡팡 깎이는 판국에.

누가 대통령 하지 말래?..... 한 반년만 경제는 손 때라는거잖아..시방,.....

골드만 삭스가 환율 떨어진다 는 건 국제 원자재 가격 동반 하락과 국제 유가 추세로

그 애들이 제시한 조건이 다른 추가 변수 없이 충족 될 때 환율이 1200원 간다는 소리지....

이건 뭐 초딩이 대학교수 흉내 내는 꼬라지니..

지금 어차피 경제 대통령 소리 믿는 애는 한 명도 없다..

이젠 좀 솔직해 지고 살길 좀 찾자는 거야.

경제 분야만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직권 정지 시키고

비상 임시 기구에서 경제 살려 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내일이 없나니깐.

살려 낸 다음에 말아 먹든.. 경제 대통령 하든..니들 마음대로 하란 거야.. 그럼.....

지금 다 망할래?...아주 웃겨..크르~~~~~릉.....

마켓에 인내력이라는걸 요구 하지 마라...이젠 애들도 바닥을 내 보이고 있다..

이젠 좀 다 같이 살자며!!!! 언제까지 이렇게 다 해쳐 먹자는거냐고..

대통령 하지 말란 소리도 아니잖아.. 일단 죽어가는 자식은 살리고 봐야지.

사전 조율도 안 된 그 따위 지원 얘기를 하는 대통령이 하는 말은

그냥 단순 판타지 소설 수준으로도 안 보는게 현실이라니깐 그러네.

지금 장난해??? -늬은이가-